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책임연구원 : 김신영(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임지연(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상욱(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승호(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유성렬(백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최지영(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이가영(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조원)

한국 청소년 개발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2005년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 부문 측정 도구 확정
- 청소년 발달 결과 부문 측정 도구의 타당화
- 청소년발달종합지표체계 산출
- 청소년발달지표 국제 Conference 사전 준비

2. 주요 연구내용

- '2005 한국청소년개발지표연구'의 결과물인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 측정 도구에 대하여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측정속성을 검토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냄.
- 문헌검토 및 연구진회의 그리고 외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거쳐 2005년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액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최종 측정도구를 생산함.
- 한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2000여명을 확률 표집하여 최종 확정된 발달부문 결과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5년도에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측정속성들을 보여주었음.
- 결과부문의 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발달의 배경-투입-과정-결과를 종합한 청소년발달종합지표체계가 완성됨(이 부분은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청소년발달종합지표'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청소년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Search Institute(미네소타주 소재)는 Developmental Asset(발달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발달의 결과 부문의 측정에 상당한 수준의 연구역량을 축적해오고 있는 기관임. 이 연구에서는 해외출장을 통하여 Search Institute의 관련 연구진들과 회의를 통하여 측정도구 및 자료의 공유, 그리고 2007년 청소년발달을 주제로 한 국제 Conference의 개최를 확정하였고 현재 원고집필 및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논의 중에 있음.

3. 정책제언

- ‘한국청소년발달지표연구I: 결과부문 지표 타당도 검증’은 측정도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한 도구 타당화 과정이 주를 이루는 연구임. 따라서 현장의 실제 청소년 정책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다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발달의 다섯 가지 결과 부문의 지표들은 각각 하나의 지수로 전환 가능하며 또한 청소년관련 정책기관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의 직업적 역량은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진로선택의 주도성’, ‘직업정보탐색능력’, ‘진로준비행동능력’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측정 가능하며 이들을 종합하여 ‘한국청소년직업능력지수’를 산출 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 지수 산출은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등에도 공히 적용 가능함.
- 이러한 지수들의 산출을 통해 한국청소년의 발달 현황에 대한 체계적 비교가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장기적 전망과 방향에 대한 비전제시의 기초자료로 기능 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이 전제되지 않는 지표의 개발은 무의미함. 그러므로 이 연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대규모의 자료 및 표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연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후 연구는 관련 정부 기관과의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목 차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8
II. 본 론	
1. 2005년 발달부문 지표의 비판적 검증	15
1) 판별·수렴타당도 평가	16
2) 예측타당도 평가	33
3) 종합논의	55
2. 2006년 청소년발달 결과부문 최종 지표 생산	58
1) 정의적 특성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59
2) 인지적 특성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65
3) 사회적 역량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70
4) 시민적 역량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75
5) 진로 및 직업역량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84
3. 2006년 조사분석 결과	88
1) 조사개요	88
2) 신뢰도분석	91
3) 판별-수렴 타당도 분석 I	97
4) 판별-수렴 타당도 분석 II	101
5) 예측타당도 평가	102
III.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부 록	129
1. 2005년 설문지	131
2. 2006년 설문지	135
3. 2006년 조사 CODE BOOK	146

표 목차

<표 I-1> 2004 청소년발달지표(안)의 주요특성별 분포현황	10
<표 II-1>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정의적 특성	18
<표 II-2>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인지적 특성	19
<표 II-3>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사회적 역량	20
<표 II-4>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시민적 역량	21
<표 II-5>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진로 및 직업 역량	22
<표 II-6>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정의적 특성	23
<표 II-7>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인지적 특성	24
<표 II-8>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사회적 역량	25
<표 II-9>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시민적 역량	26
<표 II-10>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진로 및 직업 역량 I	27
<표 II-11>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진로 및 직업 역량 II	28
<표 II-12>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진로 및 직업 역량 III	29
<표 II-13>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자아개념	34
<표 II-1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행복감	35
<표 II-15>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성취동기	36
<표 II-16>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창의성	37
<표 II-17>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자기주도학습준비도	38
<표 II-18>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문제해결능력	39
<표 II-19>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친사회성	40
<표 II-20>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사회적신뢰감	41

<표 II-21>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사회적기술	42
<표 II-22>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청소년인권의식	43
<표 II-23>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공동체의식	44
<표 II-2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국제화의식	45
<표 II-25>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소비 및 경제의식	46
<표 II-26>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진로선택의 주도성	47
<표 II-27>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직업적 특성이해	48
<표 II-28>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직업정보탐색	49
<표 II-29>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진로준비행동	50
<표 II-30>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직업선호도	51
<표 II-31> 2005년 연구에 인용된 기존 연구들의 정의적 특성 요소	59
<표 II-32>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64
<표 II-33> IDEAL 문제해결모형과 청소년발달지표의 문제해결능력의 차원 비교	68
<표 II-34>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70
<표 II-35> 사회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75
<표 II-36> 시민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83
<표 II-37> 진로 및 직업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87
<표 II-38> 응답자 분포	89
<표 II-39> 정의적 특성 - 자아개념	91
<표 II-40> 정의적 특성 - 행복감	91
<표 II-41> 정의적 특성 - 목표지향성	92
<표 II-42> 인지적 특성 - 창의성	92
<표 II-43> 인지적 특성 - 학습준비도	92
<표 II-44> 인지적 특성 - 문제해결능력	93

<표 II-45> 사회적 역량 - 사회적신뢰감	93
<표 II-46> 사회적 역량 -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	94
<표 II-47> 시민적 역량 - 인권의식	94
<표 II-48> 시민적 역량 - 국가에 대한 태도	95
<표 II-49> 시민적 역량 - 공동체의식	95
<표 II-50> 시민적 역량 - 국제화의식	95
<표 II-51> 시민적 역량 - 사회적참여의식	95
<표 II-52> 진로 및 직업 역량 - 주도성	96
<표 II-53> 진로 및 직업 역량 - 직업적 특성이해	96
<표 II-54> 진로 및 직업 역량 - 진로준비행동	97
<표 II-55>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정의적 특성	97
<표 II-56>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인지적 특성	98
<표 II-57>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사회적 역량	99
<표 II-58>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시민적 역량	99
<표 II-59>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진로 및 직업 역량	100
<표 II-60> 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표	102
<표 II-61> 정의적 특성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104
<표 II-62> 인지적 특성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106
<표 II-63> 사회적 역량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108
<표 II-64> 시민적 역량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111
<표 II-65> 진로 및 직업 역량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113

그림 목차

[그림 I-1]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연구 흐름도	7
[그림 I-2] 청소년발달지표 체계모형	10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청소년발달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기존의 청소년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망되어 왔다. 즉 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왔으며, 그들의 문화는 대항문화, 반항문화 등으로 채색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더 많은 경계의 대상이자 통제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각종 자질이나 소양을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 자원(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성인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Pittman, 1991, 1996).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청소년정책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문제예방중심(prevention)의 정책’에서 ‘청소년발달중심(development)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Pitman & Irby, 1996). 즉 ‘청소년발달(youth development)’을 핵심개념으로 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발달이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발달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직업적)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청소년 발달중심의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문제예방적 접근방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정책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정책의 목적이 ‘청소년문제의 예방이나 감소’(problem reduction)에서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preparation for adulthood)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적 관심도 단기간의 문제행동 치료·예방에서 장기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정책적 투입요인도 특정 문제행동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제공에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양질의 활동기회와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소년발달의 무대 또한 학교중심에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도서관, 공원,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내의 모든 시설·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청소년지도자는 교사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전문지도자 중심에서 가정, 이웃,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다양한 인적자원들로 확장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역할 또한 청소년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자신의 발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지역사회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전환되고 있다(Benson & Pittman, 2001).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역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보호·규제·단속 중심의 소극적인 청소년정책’에서 ‘육성·지원중심의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조영승, 2003). 즉,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발달¹⁾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발달체제(youth development system) 역시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청소년

-
- 1)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는 ‘청소년 발달’보다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학교교육정책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집행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조영승, 2003).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발달권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패러다임으로 청소년정책을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청소년보호, 청소년교육을 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로서 ‘청소년 발달’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발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의 정확한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 추진, 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청소년 발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영역인 청소년발달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개입(intervention)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통계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 확보의 시작은 우수한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을 확보하는 청소년지표의 생산에 있다. 청소년지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 대하여 일반적 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정부와 공공정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관심 및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하나의 계량적 도구이다. 사회지표의 구체적인 역할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변화방향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상태를 기술하고 사회문제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추세를 추적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세계 각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 이후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지표개발의 동향 속에서 사회체제의 각 하위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²⁾.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발달지표의 생산은 이와 같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한 유형으로 이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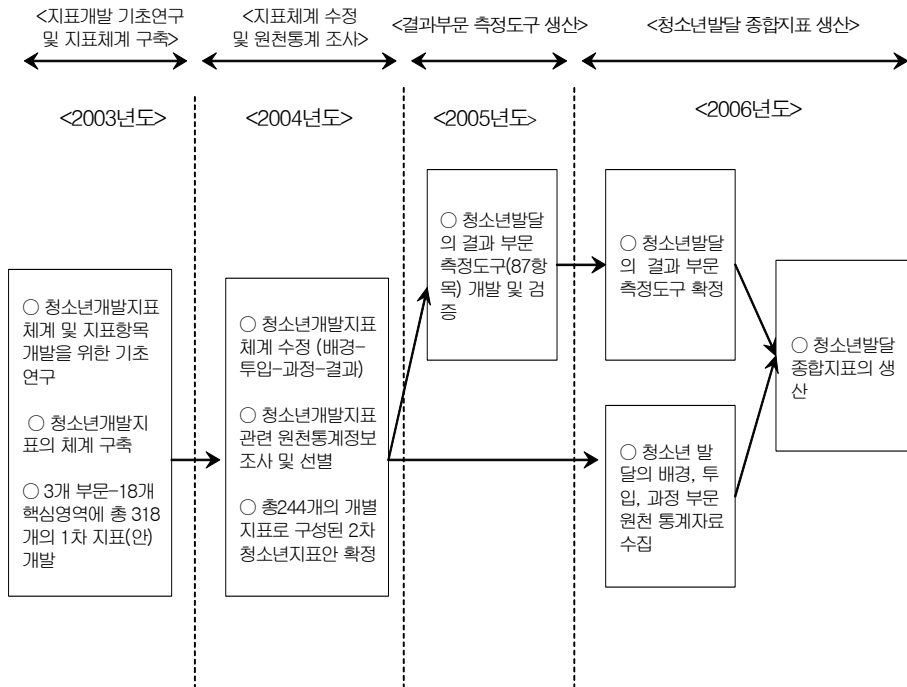
2)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부터 매년 사회지표를 작성 발간하고 있으며, 경제지표, 교육지표, 보건지표, 인적자원발달지표 등 각 부문별 지표가 개발되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발달지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지표 및 통계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청소년발달관련 지표 및 관련통계들은 상호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비체계적이며 산발적이고, 정책적 관심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현재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청소년관련 지표 및 통계로는 통계청의 청소년통계·한국의 사회지표·사회통계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OECD 교육지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수련시설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청소년생활통계연보 등이 있다. 그러나 자료간의 상호연계성과 비교기준 없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지표·청소년정책평가지표·청소년인권지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지표·청소년유해환경평가지표 등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지표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이와 같은 청소년발달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11)』에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발달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과학화·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문화관광부, 2003). 이에 따라서 한국청소년개발원(2003)은 『청소년발달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청소년 발달지표(1차안)를 개발한 바 있다. 2004년에는 2003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한국청소년 발달지표의 구성 체계 및 개별지표 항목(총 244개)을 산출하였다.

2005년도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는 2004년도에 수행된 『청소년 발달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한국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emotional competencies)’, ‘인지적 역량(cognitive competenci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ies)’,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ies)’의 다섯 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진의 2006년 청소년발달지표연구 I(이하 2006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2005년 예비적 수준에서 개발된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의 측정도구를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하고자 한다. 둘째, 2004년 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청소년발달지표의 종합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발달의 배경, 투입, 과정의 기존 통계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청소년발달종합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지난 4년여에 걸친 한국청소년발달지표 연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I-1]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연구 흐름도

2. 연구내용

2006 연구는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³⁾.

첫째, 2005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발달의 결과 부문 측정지표에 대한 비판적 검증 및 최종 측정지표의 생산이다. 2005년도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는 2004년도에 수행된 『청소년발달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한국청소년발달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emotional competencies)’, ‘인지적 역량(cognitive competenci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ies)’,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ies)’의 다섯 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전국표본을 사용한 실제 조사를 통하여 조사도구의 측정속성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2005년 연구에서 주로 고려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영역별로 이미 표준화된 도구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조사도구 세트에 구성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 함의와 실용성이라는 기준 하에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여 전체 영역을 총 87문항으로 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둘째,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은 ‘역량’이라기보다는 ‘특성’의 의미가 강하므로 2005년도 연구에서는 ‘정의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을 각각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으로 재정의 하였다. 또한 ‘직업적 역량’은 ‘진로·직업 역량’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 확정된 지표영역의 하위영역은 측정가능성 및 현실적인 도구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되었다.

2005년 연구 결과, 측정도구의 개발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후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겠지만 간단하게 밝혀진 문제점들을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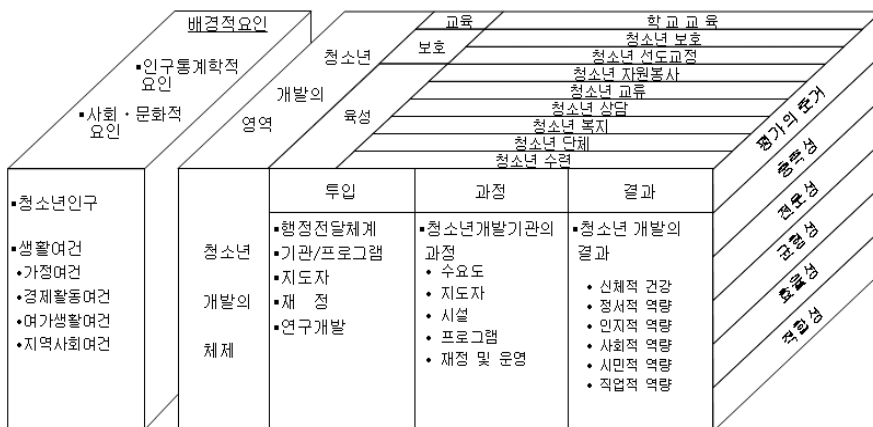
3) 2006년 연구결과는 주요 연구내용에 따라 두 권의 보고서가 생산되며 본고는 첫 번째 연구내용인 2005년에 생산된 결과부문 측정지표의 비판적 검증 및 최종지표 생산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발달지표종합체계의 구축은 개괄적인 소개만을 하기로 한다.

약하자면, 첫째, 동일한 요인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 간의 낮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최종 문항선정 단계에서의 임의성(arbitrariness)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아 수렴-판별 타당도에 문제를 보이는 하부요인들이 다수 드러났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간의 행위와 의식을 양화(quantify)하는 작업으로서 (연성)지표의 개발이란 이론적으로는 볼 때 원천적 불가능에의 도전이라는 것이다. 즉 지표의 개발이란 끊임없는 검증과 수정의 작업을 거치는 계속적인 작업이며 1차 조사의 결과가 비록 측정속성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이 후의 지속적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2005년 조사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복수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으나, 여기에는 충분한 정책적·시사적 의미를 가지는 개별문항들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낮은 문항 간 내적일치도와 복수요인구조가 반드시 문항자체의 쓸모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6년 연구는 2003년부터 3년간 진행되어온 청소년발달지표 연구의 축적물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결과부문 영역의 개념정의를 포함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05년 청소년발달지표 조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타당도를 비판적으로 검증(e.g.,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 및 판별 타당도, 동반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종 지표안을 생산 및 검증하고자 한다.

2006년 연구의 두 번째 내용은 명실상부한 청소년발달종합지표체계의 구축 및 자료생산이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확정된 『2004 청소년발달지표 체계모형』은 『배경-투입-과정-산출(결과)』의 체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며, 배경부문은 2개, 투입부문은 5개, 과정부문은 9개, 그리고 결과부문은 6개의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아래의 그림은 총 4개 과정의 청소년발달의 지표 구축안을 요약한 것이다⁴⁾.



[그림 I-2] 청소년발달지표 체계모형

2년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된 『2004 청소년발달지표 체계모형』은 대분류(4개)-핵심영역(22개)-세부영역(77개)의 분류체계 안에서 총 244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청소년발달지표를 주요 특성별로 정리하면 <표 I-1>과 같다.

<표 I-1> 『2004 청소년발달지표(안)』의 주요특성별 분포현황

구 분		청소년발달의 체계				소계
		배경부문	투입부문	과정부문	결과부문	
전체지표수		26	21	142	55	244
지표유형	객관적 지표	17	21	102	39	179
	주관적 지표	9	-	40	16	65
자료확보 방법	기 존 자 료	13	13	49	11	86
	기존 + 신규	-	-	25	-	25
	신 규 조 사	13	8	68	44	133
지표분류	주 요 지 표	15	17	97	55	184
	보 조 지 표	11	4	45	-	60

4) 각 영역별 세부지표 문항들은 2004년 한국청소년개발원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2006년 연구는 2005년에 시도된 결과부문 측정도구의 확정과 함께, 청소년발달의 선행과정인 배경, 투입, 과정 단계의 자료까지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발달지표체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미 타 기관(e.g., 통계청,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개발원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발달지표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내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2006년 연구는 1) 결과부문 측정도구의 확정과 2)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통계자료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화라는 두 가지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될 자료는 주요지표로 한정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한 논의 결과 외부통계 자료의 품질과 특성(e.g., 자료수집 주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많은 기관에서 남발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조사를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후 외부 통계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조사 설계의 구체적인 부분들(e.g., 표본추출, 조사규모, 예산, 조사주기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자 한다.

셋째, 올 한해의 연구로 전체 244개의 지표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료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연구의 목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지표의 분량을 재조정하였다.

요약하자면, 2006년 청소년발달지표연구I은 첫째, 2005년 예비적 수준에서 개발된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의 측정도구를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하고, 둘째, 2004년 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청소년발달지표의 종합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발달의 배경, 투입, 과정의 기존 통계자료들을 수집하여 청소년발달종합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 론

1. 2005년 발달부문 지표의 비판적 검증
2. 2006년 청소년발달 결과부문 최종
지표 생산
3. 2006년 조사결과 분석

II. 본론

1. 2005년 발달부문 지표의 비판적 검증

이 장에서는 2005년 조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계량분석을 통해 2005년 연구에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었던 측정속성 평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2006년 연구 이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발달의 하위영역 및 차하위영역 문항 개발 및 선별을 위한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모두 두 가지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각 하위영역과 관련된 판별·수렴타당도는 어떠하며, 이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은 어떤 것인가?

[연구문제 2] 각 차하위영역과 관련된 예측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다섯 가지 하위영역 내에서 각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3~5개 차하위영역의 문항들이 애당초 의도된 차하위영역 잠재요인(latent factor configurations)에 실제로 얼마나 잘 수렴(converge)하는지, 의도되지 아니한(엉뚱한) 차하위영역 잠재요인에 수렴함으로써(즉, 의도된 차하위영역에만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판별타당도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판독해내기 위함이다. 이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외에도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구문제 2]는 각 차하위영역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 무엇인지를 평균차 검증(t-검증, F-검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존 문헌을 통해 청소년발달의 결과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 실제로 그러한 연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가늠케 하는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상기 연구문제들은 논의 및 분석을 위해 편의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이들은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유기적 연관을 지니는 문제들로 보아야 한다. 이는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한편으로는 상호독립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 각각에 대한 독립적 분석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긴 하되 각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들 사이를 앞뒤로 오가면서 측정속성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판별·수렴타당도 평가

2005년 연구에서 이루어진 내적일관성 분석 및 요인분석은 각 차하위영역마다 별도로 이루어진 평가일 뿐 일정한 하위영역에 속하는 여러 차하위영역들이 다함께 고려된 평가는 아니었다. 청소년발달의 결과 부문을 여러 하위·차하위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이론적 구분일 뿐 각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십 여 개의 문항들이 실제로도 ‘해당 차하위영역으로만 수렴되고 여타 차하위영역으로는 수렴되지 아니하는지(즉, 여타 차하위영역으로부터 판별성을 보이는지)’ 여부는 이들 문항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EFA가 시도되지 않는 한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⁵⁾ 이와 같은 EFA는 각 하위영역마다 구체적으로 몇 개의 잠재요인(factor configurations)이 산출되는지,⁶⁾ 각 잠재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항들로 형성되는지, 여러 잠재요인에 공통적으로 수렴되는(즉, 문항의 판별성이 부족한) 문항은 없는지 등을 일시에 가늠케 해줌으로써, 이론적·개념적 예측이 실제의 자료와 부합하는 정도를 파악하게 해준다.

한편, EFA는 요인구조를 선험적(a priori)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경험적 자료

5) 한편, EFA를 시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차하위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청소년발달의 결과 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들(80개)이 해당 하위영역으로만 수렴되고 여타 하위영역으로는 수렴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려 시도해 볼 수도 있겠으나, 모든 문항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엄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져서 그와 같은 EFA는 별도로 시도하지 않음을 지적해둔다.

6) 요인 형성 혹은 산출의 기준은 Eigenvalue ≥ 1.00 이다.

만을 근거로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요인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EFA를 통해 설령 일정한 형태의 요인구조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경험적인 결과일 뿐 그 개념적 의미는 상당히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요인구조에 대한 더 명확한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인구조를 보다 더 확연하게 판단해내기 위해서는 요인구조에 일정한 선험적·개념적 제약(constraints)을 가한 상태에서 일련의 경쟁적 내재모형들을 상호 비교·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요인모형(optimal factor model)을 추출해내는 CFA가 EFA와 더불어 필수적·보완적으로 요구되기 마련이다.

각 하위요인별로 시도된 EFA 및 CFA의 결과는 <표Ⅱ-1>부터 <표Ⅱ-12>까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표 II-1>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정의적 특성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자아개념1	0.283	0.094	-0.051	-0.117
자아개념2	0.359	-0.118	0.013	-0.066
자아개념3	0.313	-0.019	0.014	0.016
자아개념4	0.282	-0.086	0.045	0.085
행복감1	0.053	0.003	0.000	0.327
행복감2 ㉠	-0.018	-0.294	-0.022	0.250
행복감3	0.025	0.051	0.035	0.351
행복감4 ㉠	-0.134	0.060	-0.012	0.413
행복감5	0.043	-0.084	-0.302	0.073
성취동기1	-0.024	-0.074	-0.450	-0.042
성취동기2	-0.051	0.054	-0.409	-0.044
성취동기3	-0.107	0.471	-0.062	0.048
성취동기4	0.237	0.229	-0.022	-0.080
성취동기5	0.029	0.499	0.057	0.025

Eigenvalue	4.314	1.784	1.208	1.042
Variance Explained	30.8%	12.7%	8.6%	7.4%

㉠은 reverse coding을 의미함 - 이하 표에 모두 해당

<표 II-2>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인지적 특성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창의성1	-0.048	-0.289	0.085	-0.032
창의성2	0.080	-0.174	0.062	0.026
창의성3	-0.042	-0.323	-0.151	0.023
창의성4	0.006	-0.277	-0.167	0.054
창의성5	-0.045	-0.081	0.463	0.008
창의성6	-0.056	-0.335	0.087	-0.084
창의성7	0.123	-0.117	-0.127	-0.015
자기주도학습준비도1	0.284	-0.021	0.057	-0.058
자기주도학습준비도2	0.316	0.060	0.049	-0.047
자기주도학습준비도3	0.204	-0.012	-0.116	0.114
자기주도학습준비도4	0.303	-0.021	-0.058	-0.072
자기주도학습준비도5	0.236	0.114	0.012	0.049
문제해결능력1	0.025	0.050	0.071	0.293
문제해결능력2	-0.053	0.006	-0.050	0.398
문제해결능력3	-0.050	0.002	-0.053	0.399
문제해결능력4 ㉔	0.001	0.117	0.382	-0.062
문제해결능력5	-0.011	-0.028	0.449	0.019
문제해결능력6	0.171	0.098	-0.129	0.159

Eigenvalue	4.928	1.792	1.225	1.089
Variance Explained	27.4%	10.0%	6.8%	6.0%

<표 II-3>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사회적 역량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친사회성1	0.022	0.025	-0.014	0.516	0.026
친사회성2	-0.048	0.023	0.014	0.572	-0.031
친사회성3 (r)	-0.050	0.386	-0.032	0.063	0.040
친사회성4 (r)	0.003	0.393	-0.052	-0.060	0.061
친사회성5 (r)	0.012	0.356	0.049	0.049	-0.130
사회적신뢰감1	0.097	0.078	-0.112	-0.017	0.480
사회적신뢰감2 (r)	0.077	0.143	0.171	-0.187	0.360
사회적신뢰감3	-0.115	-0.151	0.022	0.088	0.588
사회적신뢰감4 (r)	0.047	-0.009	0.536	0.002	-0.178
사회적신뢰감5 (r)	-0.092	-0.037	0.491	0.039	0.147
사회적기술1	0.248	-0.131	0.125	0.073	-0.157
사회적기술2	0.307	-0.005	-0.039	0.029	-0.014
사회적기술3	0.339	-0.008	0.019	-0.007	-0.048
사회적기술4 (r)	0.108	0.202	0.213	-0.151	0.016
사회적기술5	0.310	0.057	-0.064	-0.107	0.095

Eigenvalue	2.986	1.923	1.494	1.219	1.080
Variance Explained	19.9%	12.8%	10.0%	8.1%	7.2%

<표 II-4>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시민적 역량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청소년인권의식1	0.027	0.300	-0.300	0.116	-0.020	0.051
청소년인권의식2	0.063	0.356	-0.073	0.121	-0.085	-0.061
청소년인권의식3 ①	0.002	-0.080	-0.084	0.190	0.317	0.214
청소년인권의식4	-0.031	-0.014	-0.167	0.549	0.023	0.146
공동체의식1	0.376	0.061	0.069	-0.089	0.128	-0.044
공동체의식2	0.293	-0.144	-0.055	0.012	-0.074	-0.069
공동체의식3	0.019	0.012	-0.038	0.026	-0.343	-0.073
공동체의식4	0.011	-0.055	-0.005	0.045	-0.339	0.059
공동체의식5	0.041	0.027	-0.190	-0.500	-0.061	0.313
공동체의식6	0.246	-0.072	-0.037	-0.087	-0.078	0.201
공동체의식7	0.318	0.033	0.013	0.003	0.060	-0.022
국제화의식1	0.182	0.097	0.038	0.318	-0.015	-0.042
국제화의식2 ②	0.095	0.062	0.358	0.012	0.189	-0.159
국제화의식3	0.029	0.360	0.266	0.034	0.032	0.033
소비및경제의식1	-0.176	0.275	0.004	-0.057	-0.243	0.378
소비및경제의식2	0.068	-0.050	0.061	0.014	0.182	0.642
소비및경제의식3	0.017	-0.390	0.040	0.222	-0.125	0.103
소비및경제의식4	-0.087	-0.081	0.282	0.195	-0.222	0.187
소비및경제의식5	-0.014	-0.041	0.437	-0.053	-0.092	0.104

Eigenvalue	3.015	1.739	1.450	1.256	1.156	1.017
Variance Explained	15.9%	9.2%	7.6%	6.6%	6.1%	5.4%

<표 II-5>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진로 및 직업 역량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진로선택의주도성1	-0.026	0.003	0.066	0.540
진로선택의주도성2	0.014	0.016	-0.002	0.482
진로선택의주도성3 ①	0.114	0.078	0.208	0.204
직업적특성이해1	0.347	-0.005	0.026	-0.012
직업적특성이해2	0.388	0.036	0.048	-0.009
직업적특성이해3	0.360	0.000	0.042	0.001
직업정보탐색1	-0.063	-0.224	-0.151	-0.016
직업정보탐색2	0.012	-0.096	-0.150	0.166
직업정보탐색3	-0.007	-0.284	-0.001	-0.041
진로준비행동1	0.069	-0.247	0.120	0.061
진로준비행동2	0.007	-0.301	0.130	-0.062
진로준비행동3	-0.060	-0.271	-0.076	0.010
직업선호도1	-0.006	0.034	-0.495	0.025
직업선호도2	-0.018	0.021	-0.534	-0.074

Eigenvalue	4.514	2.058	1.126	1.057
Variance Explained	32.2%	14.7%	8.0%	7.5%

<표 II-6>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정의적 특성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I1)	AGFI2)	NFI3)	CFI4)	IFI5)
(M0). 귀무모형 (Null Model)	11882.004 (p<.001)	91	-	-	-	-	-
(M1). 1-요인모형 (1-Factor Model)	2996.998 (p<.001)	77	0.800	0.728	0.790	0.795	0.795
[2-요인모형 (2-Factor Models)]							
(M2_1). 자아개념 對 행복감+성취동기6)	2812.035 (p<.001)	76	0.810	0.738	0.806	0.811	0.811
(M2_2). 행복감 對 자아개념+성취동기7)	1776.372 (p<.001)	76	0.871	0.822	0.858	0.863	0.863
(M2_3). 성취동기 對 자아개념+행복감8)	2518.334 (p<.001)	76	0.827	0.760	0.815	0.821	0.821
(M3). 3-요인모형 (3-Factor Model)9)	1454.964 (p<.001)	74	0.892	0.847	0.876	0.882	0.882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6)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1

7)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8)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5

9)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3; 0.35; 0.15

<표 II -7>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인지적 특성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I1)	AGFI2)	NFI3)	CFI4)	IFI5)
(M0). 귀무모형 (Null Model)	15456.263 (p<.001)	153	-	-	-	-	-
(M1). 1-요인모형 (1-Factor Model)	2633.717 (p<.001)	135	0.852	0.813	0.855	0.862	0.862
[2-요인모형 (2-Factor Models)]							
(M2_1). 창의성 對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문제해결능력6)	2246.449 (p<.001)	134	0.871	0.836	0.871	0.878	0.878
(M2_2). 자기주도학습준비도 對 창의성+문제해결능력7)	1714.470 (p<.001)	134	0.899	0.871	0.893	0.901	0.901
(M2_3). 문제해결능력 對 창의성+자기주도학습준비도8)	2512.695 (p<.001)	134	0.858	0.819	0.865	0.873	0.873
(M3). 3-요인모형 (3-Factor Model)9)	1471.270 (p<.001)	132	0.912	0.886	0.905	0.913	0.913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6)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1
 7)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8)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1
 9)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5; 0.23; 0.17

<표 II-8>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사회적 역량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I1)	AGFI2)	NFI3)	CFI4)	IFI5)
(M0). 귀무모형 (Null Model)	5726.493 (p<.001)	105	-	-	-	-	-
(M1). 1-요인모형 (1-Factor Model)	2068.218 (p<.001)	90	0.861	0.815	0.674	0.684	0.685
[2-요인모형 (2-Factor Models)]							
(M2_1). 친사회성 對 사회적 신뢰감+사회적 기술6)	1923.559 (p<.001)	90	0.870	0.826	0.703	0.713	0.714
(M2_2). 사회적 신뢰감 對 친사회성+사회적 기술7)	1858.907 (p<.001)	89	0.874	0.830	0.716	0.726	0.727
(M2_3). 사회적 기술 對 친사회성+사회적 신뢰감8)	1925.747 (p<.001)	89	0.870	0.824	0.696	0.706	0.707
(M3). 3-요인모형 (3-Factor Model)9)	1575.640 (p<.001)	87	0.891	0.849	0.759	0.770	0.771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6)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31
 7)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24 8)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1
 9)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1; 0.03; 0.35

<표 II-9>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시민적 역량
(A=청소년인권기여, B=공동체의식, C=국제화의식, D=소비및경제의식)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I1)	AGFI2)	NFI3)	CFI4)	IFI5)
(M0). 귀무모형(Null Model)	5290.155(p<.001)	171	-	-	-	-	-
(M1). 1-요인모형(1-Factor Model)	1737.924(p<.001)	152	0.903	0.879	0.706	0.726	0.727
[2-요인모형(2-Factor Models)]							
(M2_1). A 對 B+C+D6)	1699.381(p<.001)	151	0.905	0.881	0.713	0.733	0.734
(M2_2). B 對 A+C+D7)	1631.620(p<.001)	151	0.908	0.885	0.718	0.738	0.739
(M2_3). C 對 A+B+D8)	1675.321(p<.001)	151	0.906	0.882	0.709	0.729	0.730
(M2_4). D 對 A+B+C9)	1648.906(p<.001)	151	0.908	0.884	0.720	0.741	0.742
(M2_5). A+B 對 C+D10)	1717.101(p<.001)	151	0.904	0.879	0.708	0.728	0.729
(M2_6). A+C 對 B+D11)	1637.733(p<.001)	151	0.908	0.884	0.717	0.737	0.738
(M2_7). A+D 對 B+C12)	1720.538(p<.001)	151	0.904	0.879	0.710	0.729	0.730
[3-요인모형(3-Factor Models)]							
(M3_1). A 對 B 對 C+D13)	1603.285(p<.001)	149	0.910	0.885	0.723	0.743	0.744
(M3_2). A 對 B+C 對 D14)	1611.709(p<.001)	149	0.910	0.885	0.727	0.747	0.748
(M3_3). A 對 B+D 對 C15)	1599.412(p<.001)	149	0.910	0.885	0.721	0.741	0.742
(M3_4). A+B 對 C 對 D16)	1594.798(p<.001)	149	0.910	0.886	0.724	0.744	0.745
(M3_5). A+C 對 B 對 D17)	1544.899(p<.001)	149	0.913	0.889	0.732	0.752	0.753
(M3_6). A+D 對 B 對 C18)	1627.614(p<.001)	149	0.909	0.884	0.719	0.739	0.740
(M4). 4-요인모형(4-Factor Model)19)	1514.018(p<.001)	146	0.915	0.889	0.737	0.757	0.758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6)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4
 7)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3 8)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0
 9)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1 10)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0
 11)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4 12)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4
 13)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2; 0.20; 0.17 14)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5; 0.14; 0.05
 15)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2; 0.22; 0.18 16)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0; 0.15; 0.05
 17)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4; 0.12; 0.09 18)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2; 0.22; 0.18
 19)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3; 0.22; 0.03; 0.01

<표 II-10>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진로 및 직업 역량 I
(A=진로선택의주도성, B=직업적특성이해, C=직업정보탐색, D=진로준비행동, E=직업선호도)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1)	AGFI(2)	NFI(3)	CFI(4)	IFI(5)
(M0). 귀무모형(Null Model)	13503.743(p<.001)	91	-	-	-	-	-
(M1). 1-요인모형(1-Factor Model)	4177.438(p<.001)	77	0.736	0.640	0.766	0.770	0.770
[2-요인모형(2-Factor Models)]							
(M2_1). A 對 B+C+D+E6)	3733.339(p<.001)	76	0.757	0.665	0.796	0.800	0.801
(M2_2). B 對 A+C+D+E7)	2618.090(p<.001)	76	0.816	0.746	0.845	0.849	0.849
(M2_3). C 對 A+B+D+E8)	3580.365(p<.001)	76	0.765	0.675	0.783	0.788	0.788
(M2_4). D 對 A+B+C+E9)	3045.497(p<.001)	76	0.793	0.714	0.802	0.806	0.806
(M2_5). E 對 A+B+C+D10)	3706.456(p<.001)	76	0.759	0.666	0.799	0.804	0.804
(M2_6). A+B 對 C+D+E11)	2028.579(p<.001)	76	0.852	0.795	0.865	0.870	0.870
(M2_7). A+C 對 B+D+E12)	4011.039(p<.001)	76	0.744	0.646	0.776	0.780	0.780
(M2_8). A+D 對 B+C+E13)	3944.619(p<.001)	76	0.747	0.650	0.776	0.780	0.780
(M2_9). A+E 對 B+C+D14)	3968.638(p<.001)	76	0.746	0.649	0.792	0.796	0.796
(M2_10). B+C 對 A+D+E15)	3662.602(p<.001)	76	0.761	0.669	0.789	0.794	0.794
(M2_11). B+D 對 A+C+E16)	3538.451(p<.001)	76	0.767	0.678	0.798	0.802	0.803
(M2_12). B+E 對 A+C+D17)	2411.685(p<.001)	76	0.828	0.763	0.841	0.845	0.845
(M2_13). C+D 對 A+B+E18)	1841.947(p<.001)	76	0.863	0.811	0.867	0.872	0.872
(M2_14). C+E 對 A+B+D19)	3292.331(p<.001)	76	0.780	0.696	0.804	0.808	0.808
(M2_15). D+E 對 A+B+C20)	3331.417(p<.001)	76	0.778	0.693	0.798	0.802	0.802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6)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7)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7 8)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0
 9)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9 10)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0
 11)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9 12)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13)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1 14)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5
 15)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5 16)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5
 17)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5 18)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19)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20)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9

<표 II -11>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진로 및 직업 역량 II
(A=진로선택의주도성, B=직업적특성이해, C=직업정보탐색, D=진로준비행동, E=직업선택도)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I1)	AGFI2)	NFI3)	CFI4)	IFI5)
[3-요인모형(3-Factor Models)]							
(M3_1). A 對 B 對 C+D+E21)	1589.314(p<.001)	74	0.880	0.830	0.895	0.900	0.900
(M3_2). A 對 B+C 對 D+E22)	2897.284(p<.001)	74	0.801	0.717	0.828	0.832	0.833
(M3_3). A 對 B+D 對 C+E23)	2850.681(p<.001)	74	0.803	0.721	0.835	0.839	0.839
(M3_4). A 對 B+E 對 C+D24)	1416.661(p<.001)	74	0.892	0.846	0.898	0.903	0.903
(M3_5). A 對 C 對 B+D+E25)	3116.643(p<.001)	74	0.789	0.700	0.814	0.818	0.819
(M3_6). A 對 D 對 B+C+E26)	2588.180(p<.001)	74	0.818	0.742	0.833	0.838	0.838
(M3_7). A 對 E 對 B+C+D27)	3255.408(p<.001)	74	0.782	0.690	0.831	0.836	0.836
(M3_8). A+B 對 C 對 D+E28)	2016.692(p<.001)	74	0.852	0.791	0.865	0.870	0.870
(M3_9). A+B 對 C+D 對 E29)	1290.374(p<.001)	74	0.900	0.858	0.910	0.915	0.915
(M3_10). A+B 對 C+E 對 D30)	1915.855(p<.001)	74	0.859	0.800	0.870	0.875	0.875
(M3_11). A+B 對 D 對 C+E31)	1915.855(p<.001)	74	0.859	0.800	0.870	0.875	0.875
(M3_12). A+C 對 B 對 D+E32)	2606.480(p<.001)	74	0.817	0.741	0.845	0.849	0.849
(M3_13). A+C 對 B+D 對 E33)	3349.392(p<.001)	74	0.777	0.683	0.818	0.822	0.823
(M3_14). A+D 對 B 對 C+E34)	2574.678(p<.001)	74	0.819	0.743	0.846	0.851	0.851
(M3_15). A+D 對 B+C 對 E35)	2574.678(p<.001)	74	0.819	0.743	0.846	0.851	0.851
(M3_16). A+E 對 B 對 C+D36)	1524.160(p<.001)	74	0.884	0.836	0.900	0.905	0.905
(M3_17). A+E 對 B+C 對 E37)	2749.768(p<.001)	74	0.809	0.729	0.829	0.833	0.834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 21)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4; 0.08 22)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5; 0.09
 23)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7; 0.31; 0.09 24)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9; 0.32; 0.05
 25)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0.48; 0.21 26)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5; 0.45; 0.18
 27)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3; 0.39; 0.17 28)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0.53; 0.09
 29)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0.28; 0.09 30)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0; 0.47; 0.07
 31)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7; 0.47; 0.10 32)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0.49; 0.15
 33)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7; 0.37; 0.14 34)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5; 0.37; 0.09
 35)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5; 0.37; 0.09 36)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1; 0.30; 0.08
 37)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3; 0.35; 0.08

<표 II-12> 하위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CFA) - 진로 및 직업 역량 III
(A=진로선택의주도성, B=직업적특성이해, C=직업정보탐색, D=진로준비행동, E=직업선택도)

요인모형	χ^2	자유도	GFI1)	AGFI2)	NFI3)	CFI4)	IFI5)
[4-요인모형(4-Factor Models)]							
(M4_1). A 對 B 對 C 對 D+E38) 1575.623(p<.001)	71	0.881	0.824	0.896	0.901	0.901	
(M4_2). A 對 B 對 C+E 對 E39) 812.481(p<.001)	71	0.935	0.904	0.943	0.948	0.948	
(M4_3). A 對 B 對 C+E 對 D40) 1442.556(p<.001)	71	0.890	0.837	0.902	0.906	0.907	
(M4_4). A 對 B+C 對 D 對 E41) 1982.633(p<.001)	71	0.855	0.785	0.871	0.876	0.876	
(M4_5). A 對 B+D 對 C 對 E42)2458.218(p<.001)	71	0.826	0.742	0.857	0.861	0.861	
(M4_6). A 對 B+E 對 C 對 D43) 1411.845(p<.001)	71	0.892	0.840	0.899	0.903	0.903	
(M4_7). A+B 對 C 對 D 對 E44) 1270.050(p<.001)	71	0.902	0.855	0.911	0.916	0.916	
(M4_8). A+C 對 B 對 D 對 E45) 1793.761(p<.001)	71	0.867	0.803	0.888	0.893	0.893	
(M4_9). A+D 對 B 對 C 對 E46) 1504.352(p<.001)	71	0.886	0.831	0.901	0.906	0.906	
(M5). 5-요인모형(5-Factor Model)48) 792.822(p<.001)	67	0.936	0.900	0.944	0.949	0.949	

주: 1) Goodness of Fit Index.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3) Normal Fit Index.

4) Comparative Fit Index. 5) Incremental Fit Index.

38)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2; 0.53; 0.08

39)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0; 0.28; 0.13

40)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7; 0.45; 0.04

41)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5; 0.25; 0.13

42)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52; 0.45; 0.13

43)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4; 0.54; 0.04

44)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8; 0.54; 0.24; 0.09

45)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07; 0.27; 0.24; 0.07

46) 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1; 0.32; 0.54; 0.07

47) 다섯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0.18; 0.32; 0.54; 0.24; 0.13

(1) 정의적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정의적 특성을 구성한다고 알려진 모든 문항들(14개)을 대상으로 EFA를 시도한 결과, 모두 4개의 잠재요인이 형성되었다. 판별·수렴타당도의 문제를 유발하는 문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의 두 문항(<문항1>, <문항4>)이 .30에 약간 못 미치는 부하값을 지니며, 행복감의 두 문항(<문항2>, <문항5>)이 부하값이 미약하거나 혹은 엉뚱한 요인으로 수렴되고, 성취동기는 두 개의 별도 요인으로 갈라져 버린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서의 내적일관성 및 수렴타당도 평가([연구문제 1])에서 문항별로 파악해본 문제점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로서, 이를테면 부정적 방향으로 진술된 문항들, 단일 요인의 형성에 실패한 문항들 등이 여전히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문제시되는 문항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EFA를 반복적으로 몇 차례 더 시도한 결과도 역시 애당초 기대했던 형태의 깨끗한 3-요인 모형의 도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기 자아개념, 행복감, 성취동기 등 세 가지 차하위영역을 구성한다고 알려진 14개 문항들이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에 해당한다.

한편, EFA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인구조를 보다 확연히 평가해내는 CFA를 시도한 결과(<표Ⅱ-6>)를 살펴보면, 비록 2-요인 모형 가운데 하나(M2_2) 및 3-요인 모형(M3)이 나머지 경쟁적 내재모형들에 비해 약간 더 우월한 모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⁷⁾ 어느 모형도 최적 또는 현격히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형부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의적 특성에 포함된 14개 문항들은 자아개념, 행복감, 성취동기 등 세 가지 차하위영역과 관련한 수렴타당도 뿐 아니라 판별타당도 또한 결여되었음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7) 카이자승(χ^2)의 증감에 대한 유의도 검증과 달리, 여타 모형부합치의 증감에 대해서는 그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카이자승 검증은 표본의 크기(N)에 대단히 민감히 반응해서 이 연구와 같이 상당한 크기를 지니는 연구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2) 인지적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인지적 특성에는 창의성,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문제해결능력 등 세 가지 차하위영역을 대표하는 모두 18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EFA 결과 4개의 잠재요인이 형성되었다. 판별·수렴타당도의 문제를 유발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의 다섯 문항(<문항1>, <문항2>, <문항4>, <문항5>, <문항7>)의 부하값이 미약하거나 여타 요인으로 수렴되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세 문항(<문항1>, <문항3>, <문항5>)의 부하값이 미약하고, 문제해결능력의 두 문항(<문항1>, <문항6>)의 부하값이 미약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두 요인으로 갈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편에서 볼 때에는 앞서의 내적일관성 및 수렴타당도 평가([연구문제 1])에서 문항별로 파악해본 문제점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 새로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시되는 해당 문항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EFA를 반복적으로 더 시도한 결과 또한 깨끗한 3-요인 모형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EFA에 연이어 CFA를 시도한 결과(<표Ⅱ-7>)를 살펴보면, 비록 2-요인 모형 가운데 하나(M2_2) 및 3-요인 모형(M3)이 나머지 내재모형들에 비해 다소 우월한 모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모형도 최적 또는 현격히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형부합도가 낮다. 이는 각기 창의성,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문제해결능력 등 세 가지 차하위영역을 구성한다고 알려진 18개 문항들이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며, 판별·수렴타당도가 상당히 결여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 사회적 역량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사회적 역량에는 친사회성, 사회적신뢰감, 사회적기술 등 세 가지 차하위영역을 대표하는 모두 15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EFA 결과 무려 5개의 잠재요인이 형성되었다. 문제시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친사회성이 두 개의 별도 요인으로 확연히 갈라지며, 사회적신뢰감 또한 두 개의 별도 요인으로 갈라지고, 사회적기술의 두 문항(<문항1>, <문항4>)은 그 부하값이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서의 내적일관성 및 수렴타당도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상당히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시되는 해당 문항들을 배제시킨 EFA를 몇 차례 더 반복적으로 시도한 결과 또한 깨끗한 3-요인 모형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EFA에 이어 CFA를 시도한 결과(<표 II-8>)를 보면, 대체로 3-요인 모형(M3)이 나머지 내재모형들보다 약간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 어떤 모형도 최적 또는 현격히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각기 친사회성, 사회적신뢰감, 사회적기술 등 세 가지 차하위영역을 구성한다고 알려진 15개 문항들이 실제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며, 판별·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4) 시민적 역량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시민적 역량에는 청소년인권의식, 공동체의식, 국제화의식, 소비 및 경제의식 등 네 가지 차하위영역을 대표하는 모두 19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EFA 결과 모두 6개의 잠재요인이 형성되었다. 문제시되는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차하위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문항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시민적 역량에 대한 EFA는 문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문항배제를 통한 부가적 EFA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EFA에 이어 CFA를 시도한 결과(<표 II-9>)를 보더라도 그 어느 한 가지 요인모형이 최적 또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부합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적 역량을 대표한다고 알려진 19개 문항들이 차하위영역들과 관련하여 판별·수렴타당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드러내준다.

(5) 진로 및 직업 역량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진로 및 직업 역량에는 진로선택의 주도성, 직업적특성이해,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행동, 직업선택도 등 다섯 가지 차하위영역들을 대표하는 14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EFA 결과 모두 4개의 잠재요인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문제시되는 문항들은 직업정보탐색 및 진로준비행동

의 각 3개씩의 문항들로서, 이들은 그 어떠한 요인도 형성해내지 못한다. 직업적특성이해 및 직업선택호도를 대표하는 문항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진로선택의 주도성의 한 문항(<문항4>)은 부하값이 미약하였다. 문제시되는 일부 문항들을 배제시킨 EFA를 몇 차례 더 반복한 결과 또한 애당초 기대했던 3-요인 모형의 도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EFA에 이어서 CFA를 시도한 결과(<표 II-10>, <표 II-11>, <표 II-12>) 또한 최적의 어느 한 요인모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직업·진로적 역량을 대표한다고 알려진 14개 문항들은 그 차하위영역들과 관련하여 판별·수렴타당도가 결여됨을 알 수 있다.

2) 예측타당도 평가

예측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방식의 합성변인을 각 차하위영역별로 구성한 이후 이를 모두 다섯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남학생, 여학생), 계열(인문계, 실업계),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부친 및 모친의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각각의 수준과 결부시키는 평균차 검증을 시도하였다(<표 II-13>).

① 정의적 특성

<표 II-13>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자아개념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28	3.2926	0.726	0.454									
여자	912	3.2780	0.604	(p=0.650)									
계열													
인문계	1366	3.291	0.652	0.696									
실업계	374	3.263	0.708	(p=0.487)									
지역													
대도시	887	3.338	0.651			-	-	-					
중소도시	774	3.231	0.681		5.862	**	-	-					
읍면지역	79	3.218	0.613		(p=0.003)	n.s.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3	3.206	0.690										
고졸	810	3.273	0.661		3.276								
전문대이상	649	3.334	0.650		(p=0.038)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1	3.157	0.692								-	-	-
고졸	1004	3.299	0.647		6.930						**	-	-
전문대이상	375	3.349	0.662		(p=0.001)						**	n.s.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1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행복감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성별													
남자	821	3.296	0.739	0.417 (p=0.677)									
여자	907	3.310	0.650										
계열													
인문계	1355	3.317	0.687	1.521 (p=0.128)									
실업계	373	3.255	0.715										
지역													
대도시	878	3.324	0.663		0.866 (p=0.421)								
중소도시	771	3.279	0.718										
읍면지역	79	3.309	0.779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1	3.128	0.751		8.462 (p=0.000)			-	-	-			
고졸	807	3.291	0.685					**	-	-			
전문대이상	642	3.361	0.684					**	n.s.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9	3.165	0.739		6.225 (p=0.002)					-	-	-	
고졸	999	3.328	0.678								**	-	-
전문대이상	371	3.335	0.693								**	n.s.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15>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성취동기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 도시	중 소 도시	읍 면 지역	중 졸 이 하	고 졸	전 문 대 이 상	중 졸 이 하	고 졸	전 문 대 이 상
성별														
남자	827	3.778	0.720	4.601										
여자	909	7.929	0.642	(p=0.001)										
계열														
인문계	1363	3.903	0.657	5.026										
실업계	373	3.687	0.754	(p=0.000)										
지역														
대도시	884	3.917	0.651		7.181	-	-	-						
중소도시	773	3.796	0.708		(p=0.001)	**	-	-						
읍면지역	79	3.775	0.759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3	3.682	0.726		20.394				-	-	-			
고졸	807	3.816	0.689		(p=0.000)				**	-	-			
전문대이상	647	3.989	0.626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2	3.716	0.700		13.006							-	-	-
고졸	1001	3.863	0.673		(p=0.000)							**	-	-
전문대이상	374	3.991	0.647									**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② 인지적 특성

<표 II-16>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창의성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성별												
남자	815	3.571	0.605	0.629								
여자	902	3.589	0.555	(p=0.529)								
계열												
인문계	1354	3.608	0.556	3.451								
실업계	363	3.478	0.649	(p=0.001)								
지역												
대도시	876	3.572	0.573		0.265	-	-	-				
중소도시	765	3.587	0.578		(p=0.767)	**	-	-				
읍면지역	76	3.613	0.666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7	3.513	0.631		6.993				-	-	-	
고졸	800	3.547	0.564		(p=0.001)				n.s.	-	-	
전문대이상	642	3.647	0.566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6	3.511	0.619		8.521							-
고졸	996	3.565	0.566		(p=0.000)							n.s.
전문대이상	369	3.686	0.553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17>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21	3.553	0.690	3.993									
여자	911	3.681	0.628	(p=0.000)									
계열													
인문계	1359	3.660	0.642	4.504									
실업계	373	3.477	0.709	(p=0.000)									
지역													
대도시	878	3.678	0.647		6.926	-	-	-					
중소도시	776	3.565	0.672		(p=0.001)	**	-	-					
읍면지역	78	3.526	0.652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3.519	0.714		11.106				-	-	-		
고졸	804	3.583	0.660		(p=0.000)				n.s.	-	-		
전문대이상	646	3.721	0.626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0	3.532	0.691		8.682							-	-
고졸	1000	3.617	0.659		(p=0.000)							n.s.	-
전문대이상	372	3.743	0.607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18>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문제해결능력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20	3.088	0.602	0.909									
여자	909	3.113	0.573	(p=0.363)									
계열													
인문계	1359	3.122	0.584	2.836									
실업계	370	3.025	0.590	(p=0.005)									
지역													
대도시	877	3.166	0.560		10.993	-	-	-					
중소도시	773	3.031	0.611		(p=0.000)	**	-	-					
읍면지역	79	3.076	0.563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9	2.976	0.600		17.605			-	-	-			
고졸	806	3.051	0.584		(p=0.000)			n.s.	-	-			
전문대이상	645	3.203	0.563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8	2.961	0.612		14.940						-	-	-
고졸	1001	3.098	0.567		(p=0.000)						n.s.	-	-
전문대이상	371	3.216	0.586								**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19>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친사회성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성별												
남자	825	3.363	0.609	3.791								
여자	910	3.467	0.533	(p=0.000)								
계열												
인문계	1361	3.447	0.566	4.074								
실업계	374	3.311	0.583	(p=0.000)								
지역												
대도시	882	3.443	0.566		5.205	-	-	-				
중소도시	775	3.407	0.576		(p=0.006)	n.s.	-	-				
읍면지역	78	4.231	0.578			**	**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3.370	0.502		1.084							
고졸	807	3.425	0.558		(p=0.338)							
전문대이상	646	3.439	0.608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1	3.404	0.562		0.465							
고졸	1000	3.436	0.560		(p=0.628)							
전문대이상	374	3.412	0.618									

** p<.05

a Sheffe 사후검증

③ 사회적 역량

<표 II-20>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사회적신뢰감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성별												
남자	823	2.647	0.593	0.902								
여자	911	2.622	0.571	(p=0.367)								
계열												
인문계	1362	2.628	0.583	0.855								
실업계	372	2.657	0.575	(p=0.392)								
지역												
대도시	883	2.652	0.578		1.794	-	-	-				
중소도시	773	2.607	0.578		(p=0.167)	n.s.	-	-				
읍면지역	78	2.700	0.636			**	**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3.370	0.502		1.084							
고졸	807	3.425	0.558		(p=0.338)							
전문대이상	646	3.439	0.608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1	2.565	0.571		3.111							
고졸	807	2.667	0.581		(p=0.045)							
전문대이상	647	2.612	0.580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1>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사회적기술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23	3.101	0.678	1.327									
여자	913	3.143	0.639	(p=0.185)									
계열													
인문계	1365	3.121	0.658	0.223									
실업계	371	3.130	0.662	(p=0.823)									
지역													
대도시	551	3.181	0.640		7.076	-	-	-					
중소도시	775	3.062	0.678		(p=0.001)	**	-	-					
읍면지역	77	3.075	0.609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3	3.031	0.654		5.752				-	-	-		
고졸	804	3.098	0.655		(p=0.003)				n.s.	-	-		
전문대이상	649	3.189	0.660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2	2.988	0.698		7.056							-	-
고졸	999	3.148	0.640		(p=0.001)							**	-
전문대이상	375	3.166	0.673									**	n.s.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2>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청소년인권의식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성별											
남자	821	3.431	0.654	1.200							
여자	912	3.395	0.620	(p=0.230)							
계열											
인문계	1361	3.394	0.632	2.282							
실업계	372	3.479	0.650	(p=0.023)							
지역											
대도시	885	3.379	0.650		2.428						
중소도시	769	3.444	0.621		(p=0.088)						
읍면지역	79	3.462	0.623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0	3.482	0.603		2.550						
고졸	808	3.426	0.644		(p=0.078)						
전문대이상	645	3.373	0.634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8	3.445	0.617		5.693				-	-	-
고졸	1002	3.443	0.631		(p=0.003)				n.s.	-	-
전문대이상	374	3.317	0.659						**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④ 시민적 역량

<표 II-23>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공동체의식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성별											
남자	825	2.989	0.656	4.557							
여자	910	2.853	0.571	(p=0.000)							
계열											
인문계	1361	2.913	0.618	0.549							
실업계	374	2.933	0.610	(p=0.583)							
지역											
대도시	883	2.915	0.617		0.027						
중소도시	773	2.919	0.617		(p=0.974)						
읍면지역	79	2.931	0.612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2.969	0.595		1.796						
고졸	807	2.926	0.586		(p=0.166)						
전문대이상	646	2.882	0.658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9	2.905	0.607		4.020				-	-	-
고졸	1003	2.945	0.585		(p=0.018)				n.s.	-	-
전문대이상	374	2.840	0.688						n.s.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국제화의식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성별														
남자	827	3.518	0.671	0.664 (p=0.507)	4.617 (p=0.010)	-	-	-						
여자	910	3.538	0.590			n.s.	-	-						
계열														
인문계	1363	3.572	0.621	5.630 (p=0.000)		**	**	-						
실업계	374	3.367	0.635											
지역														
대도시	885	3.532	0.601	8.376 (p=0.000)										
중소도시	773	3.546	0.658											
읍면지역	79	3.321	0.630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3	3.470	0.623	2.037 (p=0.131)										
고졸	807	3.497	0.633											
전문대이상	647	3.620	0.618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9	3.498	0.626											
고졸	1004	3.536	0.630											
전문대이상	374	3.595	0.621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5>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소비 및 경제의식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성별											
남자	825	3.287	0.593	5.647							
여자	908	3.137	0.501	(p=0.000)							
계열											
인문계	1362	3.205	0.541	0.394							
실업계	371	3.219	0.593	(p=0.694)							
지역											
대도시	882	3.204	0.547		0.195						
중소도시	773	3.210	0.558		(p=0.823)						
읍면지역	78	3.244	0.552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3.183	0.575		2.103		-	-	-		
고졸	807	3.189	0.531		(p=0.122)		n.s.	-	-		
전문대이상	645	3.244	0.558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0	3.188	0.575		4.258					-	-
고졸	1001	3.182	0.532		(p=0.014)					n.s.	-
전문대이상	373	3.277	0.559							n.s.	**

** p<.05

a Sheffe 사후검증

⑤ 진로 및 직업 역량

<표 II-26>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진로선택의 주도성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08	3.958	0.595	4.575									
여자	889	4.084	0.534	(p=0.000)									
계열													
인문계	1334	4.058	0.553	4.462									
실업계	363	3.902	0.600	(p=0.000)									
지역													
대도시	858	4.031	0.558		4.889	-	-	-					
중소도시	761	4.037	0.573		(p=0.008)	n.s.	-	-					
읍면지역	78	3.829	0.583			**	**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7	3.970	0.562		5.186				-	-	-		
고졸	792	4.002	0.575		(p=0.006)				n.s.	-	-		
전문대이상	626	4.085	0.544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4	4.034	0.579		2.375							-	-
고졸	978	4.012	0.558		(p=0.093)							n.s.	-
전문대이상	372	4.086	0.556									**	n.s.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7>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직업적 특성이해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05	3.652	1.022	2.698									
여자	884	3.785	1.007	(p=0.007)									
계열													
인문계	1326	3.785	1.001	4.945									
실업계	363	3.489	1.039	(p=0.000)									
지역													
대도시	853	3.793	0.989			-	-	-					
중소도시	758	3.657	1.045		4.508	**	-	-					
읍면지역	78	3.573	0.982		(p=0.011)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4	3.473	1.122					-	-	-			
고졸	789	3.692	0.996		9.507			**	-	-			
전문대이상	635	3.831	1.012		(p=0.000)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2	3.586	1.060								-	-	-
고졸	975	3.728	1.010		4.478						n.s.	-	-
전문대이상	371	3.834	0.997		(p=0.011)						**	n.s.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8>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직업정보탐색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07	2.679	0.982	3.448									
여자	886	2.836	0.882	(p=0.001)									
계열													
인문계	1329	2.769	0.916	0.713									
실업계	364	2.730	0.996	(p=0.476)									
지역													
대도시	855	2.901	0.905			-	-	-					
중소도시	760	2.602	0.933		21.105	**	-	-					
읍면지역	78	2.778	1.015		(p=0.000)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8	2.500	0.983					-	-	-			
고졸	788	2.737	0.904		12.626			**	-	-			
전문대이상	634	2.875	0.930		(p=0.000)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5	2.635	0.984								-	-	-
고졸	976	2.754	0.914		7.197						n.s.	-	-
전문대이상	370	2.912	0.911		(p=0.001)						**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29>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진로준비행동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성별													
남자	808	2.459	0.976	4.628									
여자	886	2.250	0.868	(p=0.000)									
계열													
인문계	1330	2.292	0.898	4.636									
실업계	364	2.560	1.000	(p=0.000)									
지역													
대도시	856	2.440	0.941		9.846 (p=0.000)	-	-	-					
중소도시	760	2.240	0.910			**	-	-					
읍면지역	78	2.423	0.825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8	2.273	0.893		1.608 (p=0.201)								
고졸	791	2.325	0.901										
전문대이상	633	2.393	0.960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5	2.280	0.921		2.144 (p=0.117)								
고졸	976	2.337	0.911										
전문대이상	370	2.428	0.962										

** p<.05

a Sheffe 사후검증

<표 II-30>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별 평균차 검증 - 직업선택도

변수들	유효 케이스	평균	표준 편차	t 값	F 값	지역 ^a		부친의 교육수준 ^a		모친의 교육수준 ^a	
						대 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성별											
남자	823	3.440	0.939	2.178							
여자	908	3.536	0.876	(p=0.030)							
계열											
인문계	1358	3.544	0.896	4.728							
실업계	373	3.295	0.925	(p=0.000)							
지역											
대도시	881	3.615	0.871			-	-	-			
중소도시	771	3.361	0.936		17.118	**	-	-			
읍면지역	79	3.373	0.845		(p=0.000)	n.s.	n.s.	-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3.224	1.005					-	-	-	
고졸	804	3.457	0.873		15.517			**	-	-	
전문대이상	650	3.618	0.898		(p=0.000)			**	**	-	
모친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60	3.323	0.910							-	-
고졸	1000	3.481	0.895		11.021					**	-
전문대이상	376	3.658	0.910		(p=0.000)					**	**

** p<.05

a Sheffe 사후검증

(1) 정의적 특성

첫째, 자아개념은 중소도시(3.231)보다는 대도시(3.338)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더 높았고, 모친이 중졸이하(3.157)이거나 고졸(3.299)인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3.349)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에 더 높았다.

둘째, 행복감은 부친 및 모친의 학력과 각기 관련을 지녀서, 부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128, 고졸 3.291, 전문대이상 3.361) 그리고 모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165, 고졸 3.328, 전문대이상 3.335)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성취동기는 모든 배경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냈는데, 남학생(3.778)보다는 여학생(3.929)에게서, 실업계(3.687)보다는 인문계(3.903) 학생에게서, 중소도시(3.796)보다는 대도시(3.917)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682, 고졸 3.816, 전문대이상 3.989) 그리고 모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716, 고졸 3.863, 전문대이상 3.991) 더 높았다.

(2) 인지적 특성

첫째, 창의성은 계열 및 부모의 학력과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내어서, 실업계(3.478)보다는 인문계(3.608) 학생들에게서, 그리고 부친의 교육수준이 높고(중졸이하 3.513, 고졸 3.547, 전문대이상 3.647) 모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511, 고졸 3.565, 전문대이상 3.686)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모든 배경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내어서, 남학생(3.553)보다는 여학생(3.681)에게서, 실업계(3.477)보다는 인문계(3.660) 학생에게서, 중소도시(3.565)보다는 대도시(3.678)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519, 고졸 3.583, 전문대이상 3.721) 그리고 모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532, 고졸 3.617, 전문대이상 3.743)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문제해결능력은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실업계(3.025)보다는 인문계(3.122) 학생에게서, 중소도시(3.031)보다는 대도시(3.166)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2.976,

고졸 3.051, 전문대이상 3.203) 그리고 모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2.961, 고졸 3.098, 전문대이상 3.216) 더 높았다.

(3) 사회적 역량

첫째, 친사회성은 성별, 계열, 그리고 거주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서, 남학생(3.363)보다는 여학생(3.467)에게서, 실업계(3.311)보다는 인문계(3.447) 학생에게서, 그리고 중소도시(3.407)나 대도시(3.443)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읍면지역(4.231)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사회적신뢰감은 부친의 학력과만 유의미한 연관을 보여서 부친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2.565)보다 고졸(2.667) 혹은 대졸이상(2.612)인 경우에 더 높았다.

셋째, 사회적기술은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을 나타내 중소도시(3.062)보다는 대도시(3.181)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그리고 부친의 학력이 높거나(중졸이하 3.031, 고졸 3.098, 전문대이상 3.189) 모친의 학력이 높은(중졸이하 3.988, 고졸 3.148, 전문대이상 3.166)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4) 시민적 역량

첫째, 청소년인권의식은 계열 및 모친의 학력과 관련이 있어서 인문계(3.394)보다는 실업계(3.479) 학생에게서, 그리고 모친이 전문대이상(3.317)인 경우보다는 중졸이하(3.445)이거나 고졸(3.443)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공동체의식은 성별 및 모친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는데, 여학생(2.853)보다는 남학생(2.989)에게서 그리고 모친이 전문대이상(2.840)인 경우보다는 고졸(2.945)인 경우에 더 높았다.

셋째, 국제화의식은 계열, 거주지역, 부친의 학력과 관련되었는데, 실업계(3.367)보다는 인문계(3.572) 학생에게서, 읍면지역(3.321)보다는 중소도시(3.546)나 대도시(3.532)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그리고 부친이 중졸이하(3.470)이거나 고졸(3.497)인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3.620)인 경우에 상대적

으로 높았다.

넷째, 소비및경제의식은 성별 및 모친의 학력과만 관련성을 보였는데, 여학생(3.137)보다는 남학생(3.287)에게서 그리고 모친이 고졸(3.182)인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3.277)인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진로·직업 역량

첫째, 진로선택의주도성은 성별, 계열, 거주지역, 부친의 학력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서, 남학생(3.958)보다는 여학생(4.084)에게서, 실업계(3.902)보다는 인문계(4.058) 학생에게서, 읍면지역(3.829)보다는 중소도시(4.037)나 대도시(4.031)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이 중졸이하(3.970)이거나 고졸(4.002)인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4.085)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직업적특성이해는 모든 배경변인들과 관련을 나타냈는데, 남학생(3.652)보다는 여학생(3.785)에게서, 실업계(3.489)보다는 인문계(3.785) 학생에게서, 중소도시(3.657)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대도시(3.793)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473, 고졸 3.692, 전문대이상 3.831) 그리고 모친이 중졸이하(3.586)인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3.834)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직업정보탐색은 계열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관련을 보였는데, 남학생(2.679)보다는 여학생(2.836)에게서, 중소도시(2.602)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대도시(2.901)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2.500, 고졸 2.737, 전문대이상 2.875) 그리고 모친이 고졸(2.745)인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2.912)인 경우에 더 높았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계열, 거주지역과 관련을 나타냈는데, 여학생(2.250)보다는 남학생(2.459)에게서, 인문계(2.292)보다는 실업계(2.560) 학생에게서, 중소도시(2.240)보다는 대도시(2.440)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선택의도는 모든 배경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서, 여학생(3.536)보다는 남학생(3.440)에게서, 실업계(3.295)보다는 인문계(3.544) 학생

에게서, 중소도시(3.361)보다는 대도시(3.615)에 거주하는 학생에게서,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224, 고졸 3.457, 전문대이상 3.618) 그리고 모친의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3.323, 고졸 3.481, 전문대이상 3.658) 유의미하게 높았다.

예측타당도와 관련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혹은 상당수의 차하위영역들이 해당 배경변인들과 일정한 연관관계를 나타내어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기보다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대체로 더 우월한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유형,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등이 청소년발달의 결과(outcome)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예측타당도를 확보케 해주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논의

평가결과는 한마디로 말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여겨진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섯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볼 수 있겠는데, 첫째 차하위영역들의 내적일관성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며⁸⁾, 둘째 각 차하위영역이 단일 요인을 형성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셋째 내적일관성 및 요인형성의 문제점은 부정적 방향으로 진술된 문항들의 경우에 특별히 심각하며, 넷째, 대부분의 차하위영역들은 성별, 계열,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등 청소년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과 일정한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다섯째 다양한 차하위영역들을 대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십 개의 문항들은 해당된 차하위영역에 수렴하지 않을뿐더러 의도되지 않은 차하위영역에 수렴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함으로써 판별·수렴타당도가 현저히 결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들 가운데 네 번째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모든 결과들은 적잖이 염려스러운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의 판별·수렴타

8) 내적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α 값은 문항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도에 관한 결과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한데, 그 이유는 이 결과가 각 차하위영역이 여타 영역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구성체(distinct construct)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장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의 진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발전적·전향적 처방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처방 혹은 해결책의 제시는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진단 혹은 발견된 결과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을 결론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의 경우 양대 측정속성(신뢰도, 타당도) 모두에 있어서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의 문항구성에서는 일관된 진술 방식의 문항들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실 문항의 진술 방향에 천착하는 수많은 방법론적 연구들은 긍정 방향과 부정 방향의 문항들을 혼용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어서 대단히 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fielding)의 제반 이상적인 방법론적 원칙들이 굳건히 준수될 수 있는 상황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발달 연구에서처럼 응답대상자가 장난끼 많은 고교생들이고 설문기입방식도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인 경우 응답자의 동기화 문제(motivation problem)로 인해 양방향 진술의 혼용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실제로 이 연구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된 바와 같다.

둘째,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론적·개념적 논의가 상당 부분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다분히 탐색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라는 점을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분석결과,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의 각 하위·차하위 영역의 개념적 구분 및 관련 문항의 선정은 연역적이 아닌 다소 귀납적인 접근 위주로 진행되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2005년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최종문항선정 단계에서의 임의성 또한 넓게 보면 귀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로 심대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된 상당 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류한 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해서, 필경 이론적·개념적 몰이해 및 자의적 문항개발은 차후의 측정속성 평가 결과가 설사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학술적·정책적 함의는 상당 부분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한편에서는 건고한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기반으로 청소년발달의 결과 부문 하위·차하위영역을 분류해냄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수많은 경험연구들을 통해서 그 측정속성이 우월하기로 여실히 판명된 양질의 표준화된 척도(standardized measurement scale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액면타당도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의 한 문항인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을 끝낸다’(<문항5>)는 진술은 과제집착력에 대한 문항이다. 과제집착력은 Renzulli(1978)가 영재들이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 능력중 하나이며 창의성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다. 계속해서 살펴 보면,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문항3>)는 진술이 ‘사회적신뢰감’을 측정할 수 있겠는지, ‘우리과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문항4>)가 ‘청소년인권의식’을 측정해 내겠는지,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문항5>)가 ‘공동체의식’을 측정해 내는지,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항2>)가 ‘국제화의식’에 대한 올바른 측정인지,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문항5>)가 ‘소비및경제의식’을 측정하겠는지 등 일견 액면타당도(face validity)로만 평가해보더라도 누구라도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문항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액면타당도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대단히 단순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만일의 지적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제아무리 정교하게 구성된 문항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의 직관과 상식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해당 개념구성체의 개념적 영역(conceptual domains)을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적합성 혹은 타당도는 의

심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지적을 포용해서, 일관된 방향의 문항진술을 사용하고 아울러 굳건한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양질의 표준화된 척도를 도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으로 조속히 시도하여야 할 작업은 아마도 새로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시도한 각종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재차 시도하는 일일 것이다. 개념적, 방법론적 적합성이 높을 경우 청소년지표의 개발이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측정속성의 평가 결과 또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06년 청소년발달 결과부문 최종 지표 생산

이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2005년 결과 부문 지표의 측정속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최종 도구를 생산하고자 한다. 사회현상을 양화시켜내는 지표의 개발이란 현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및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지표개발 작업은 철저히 연역적인(deductive) 작업이다. 이는 지표개발 작업의 초기 단계인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론적 이해와 개발된 지표의 액면 및 내용타당도 확인 작업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되었다시피 2005년에 개발된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 지표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차하위영역 내에서의 수렴타당도와 내적일관성을 제외하고는⁹⁾ 어느 영역에도 지표로서 만족스러운 분석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지표개발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된 지표가 학술연구 및 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할 때, 얼마나 양질의 지표를 생산해 내는가? 하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진행되어온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 지표의 개발이 2006년 까지 이어지면서 이처럼 엄격한 분석과정을 거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9) 이것마저도 정의적특성, 인지적특성 및 진로와 직업역량에 해당되며 나머지 두 영역에서는 차하위영역의 수렴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2005년 지표의 수정과 최종지표의 생산 작업은 2005년 지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재검토 및 액면·내용 타당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 정의적 특성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정의적 특성(affective characteristics)이라 함은 ‘인지적 특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행동의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주요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정의적 특성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표 II-31> 2005년 연구에 인용된 기존 연구들의 정의적 특성 요소

Pittman & Irby(1996)	개인유능감, 자기확신감, 자아정체감
미국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자기결정감,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Search Institute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목적의식,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

이처럼 정의적 특성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견해에 따라 세부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의와 하위영역구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의적 특성의 중심개념들은 자아개념, 정서(행복감), 성취동기 등이다.

2005년 연구에서는 정의적 특성을 자아개념, 행복감, 성취동기로 나누고 있다. 핵심적 이슈는 ‘정의적 특성의 하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청소년들의 발달상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자아개념, 행복감, 성취동기의 세 개념간의 관련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2005년 연구를 따르자면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을 발달시킨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비교적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 자아개념¹⁰⁾

자아개념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효능감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의견, 태도, 가치관, 감정 등 복합적인 지각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p20). 따라서 자아개념에 대한 문항구성도 좁은 의미의 자아개념에 해당하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넓은 의미의 자아개념에 해당되는 여러 차원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내용상 구분해 보면 자기효능감 문항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과 자아개념 문항(외모, 대인관계, 성격에 대한 자아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 ②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 ③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④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마다 다르고, 어떤 이론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해당 문항들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이 상이하다(박도영, 2006¹¹⁾). 따라서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선정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기’와

10) 자아개념(self-concept)은 교육심리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으로 통일되어 사용한다. 2005년 보고서에는 자기개념과 자아개념의 용어가 혼용(18p) 되어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 학지사에서 출판된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도 self-concept은 자아개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니, 보고서 전반에 걸쳐 자아개념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11)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구분하는 입장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구분하지 않고, 자아개념 내에 영역/과제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 둘째,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아개념은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보는 입장, 셋째, 자아개념문항은 주로 자신의 상태와 감정에 대한 문항이며, 자아효능감 문항은 주로

관련된 영역을 먼저 선정한 후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중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성격), 학업, 외모, 인간관계 등의 내용영역을 먼저 결정한 후에, 자아개념을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을 측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2005년 지표와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아개념 요인을 크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내용구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였을 때 2005년 조사 도구 중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는 자아존중감에 속하게 되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와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기효능감으로 구분가능하다. 마지막 문항은 2005년 연구에서는 정의적 특성 중 ‘성취동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자아개념 영역에 더 부합하는 문항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의적 특성 중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 ②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 ③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④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 ⑤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행복감

행복감이란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써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정서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2005년 연구에서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 넷째, 학업적 자아개념문항은 주로 특정과목을 언급하고, 자아효능감문항은 대부분 특정영역을 언급한다고 보는 입장,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을 인지적 자아개념과 정의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는 입장 등이 있다.

- ① 나는 행복하다(행복감)
- ②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스트레스)
- ③ 나는 즐겁다(행복감)
- ④ 나는 살고 싶지 않다(자살)
- ⑤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행복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불안, 스트레스, 자살에 대한 욕구 등이 적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이다. 불안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과 행복감과 관계는 논리적으로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살욕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리 만무하나 그 역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살욕구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자체와 행복감의 관계 또한 다소 다른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복감이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이고,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적절한 긴장상태를 이탈하여 불균형 상태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김애순, 윤진, 1995). 즉, 개념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해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Lightsey, 1994). 따라서 스트레스 정도와 행복감과의 관계는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별로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료 분석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2005년 연구의 행복감 측정문항 중 복수의 부정진술문항(negatively worded items)들은 내적일관성과 요인구조 수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문항이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막연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연구진에서 제

시되었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첫째, 모든 부정진술문항을 모두 긍정 문항으로 바꾸고, 둘째, ‘나는 행복하다’ 문항을 수정하고, 셋째,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문항은 개념적으로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보다는 미래의 목표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며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행복감’이 아닌 ‘성취동기’나 ‘목표지향성’에 더욱 근접한 문항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확정된 문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③ 나는 사는 게 즐겁다

(3)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성취목표 지향성, 학업목표, 사회적 동기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의 내부적 혹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성취욕구의 충족과 목표 추구활동에 원동력이 되며,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는 현실적 여건¹²⁾을 고려하여 성취동기를 성취동기, 목표 지향성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 연구에서 정의적 특성 중 성취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장기-목표지향성)
- ②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단기-목표지향성).
- ③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성취동기).
- ④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성취동기).
- ⑤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성취동기).

12) 성취동기 개념의 모든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을 만들 경우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며, 사회적 동기는 진로 및 직업역량 부문에서 다시 측정되기 때문이다.

앞의 자아개념 부분에서 밝혔듯이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문항은 성취동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에 더욱 근접한 문항이며,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와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두 문항은 서로 수렴되지도 않거니와 목표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과도 수렴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목표지향성’을 측정하는 세 개의 문항만이 수렴타당도와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취동기’의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새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성취동기’의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만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는 연구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문항들은 ‘목표 지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액면타당도와 청소년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약간의 문항수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정의적 특성 중 ‘목표지향성’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 ②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 ③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II-32>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정의적 특성	자아 개념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 한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
	행복감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목표 지향성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인지적 특성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인지적 특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의 복합체’로 정의되며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1) 창의성

2005년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Amabile, 1988; Barron & Harrington, 1981; Woodman & Schoefeldt, 1989; Perkins, 1981)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창의적 성향의 하위요인으로 독립심, 호기심, 독특함, 상상력, 집착성, 개방성, 직관성 등 일곱 개를 채택하였다.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독립심)
- ②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호기심)
- ③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독특함)
- ④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상상력)
- 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집착성)
- ⑥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개방성)
- ⑦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한다(직관성)

액면타당도 차원에서 볼 때 집착성을 측정하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와 직관성을 측정하는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독특함을 측정하는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끈기 있게 일(학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청소년의 창의적 특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애매모호하며, 직관성 또한 어찌 생각해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판단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관에 의한 판단을 창의적 판단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독특함’이란 긍정적인 의미(unique)와 부정적인 의미

(odd, strange, weird)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의 긍정적인 자산으로서 창의적 특성과는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내용타당도 측면에서 창의성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두 문항의 문제점은 요인분석을 통한 수렴판별도 확인과정에서도 발견 된다. 따라서 문제시 되는 두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확정된 인지적 특성의 창의성 측정문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 ②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 ③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④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2)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자기주도학습준비도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나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타인주도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사 혹은 타인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적용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학습형태를 말한다(Guglielmino, 1977). 즉,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주인이 되어 학습의 책임을 스스로 지며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SDLRS-E 척도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도구를 근거로 하여 ‘학습에 대한 열망’,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성향’,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를 측정하는 다섯 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 ①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학습에 대한 열망).
- ②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 ③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도전에 대한 개방성)
- ④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호기심 성향)
- 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요인분석 결과 위 다섯 문항은 수렴타당도 뿐만 아니라 다른 차하위영역과 비교할 때 양호한 판별타당도를 보여 주었고, 문항 간 내적일관성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액면타당도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첫째, 학습에 대한 열망을 측정하는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와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어의 상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문항에서 ‘결과에 상관없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호기심’ 자체가 반드시 학습과 관련된 내용만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일탈이나 부도덕 행위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된 정의적 특성 중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 ②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 ③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 ④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능력’의

로 정의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의 일반적 과정에 따라 목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의사결정, 계획시행, 평가/피드백의 6개의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제해결능력 속성에 따른 2005년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목표인식)

②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정보수집)

③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분석능력)

④ 나는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의사결정)

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 한다(계획시행)

⑥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평가/피드백)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전략과정(김아영 외, 2004 재인용)과 2005년 연구의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II-33> IDEAL 문제해결모형과 청소년발달지표의 문제해결능력의 차원 비교

Bransford & Stein (1993)의 IDEAL 문제해결모형	청소년 발달 지표의 문제해결능력
문제파악(Identify problems and opportunities)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
목표정의 및 문제표상 (Define goals & represent the problem)	목표인식
전략 탐색 (Explore possible strategies)	정보수집/분석능력
결과예상/전략실행 (Anticipate outcomes & act)	의사결정/계획시행
평가/피드백 (Look back & learn)	평가/피드백

<표 II-33>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개발 지표의 문제해결능력의 차원은 일반적인 문제해결전략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측면에서 문제해결능력의 측정문항들은 다소 문제를 보이고 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여기에서도 부정진술 문항(negatively worded item)이(나는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 전체 요인구조와 내적일관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둘째,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문항은 과연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문제제기와 함께 문제해결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 문제해결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연구진들로부터 제시되었다. 셋째,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어느 한 요인에도 선택되지 않는 무요인 문항임이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세 개 문항을 삭제하고 대신 문제해결과정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과 ‘문제해결 후 평가’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여 최종 지표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 ①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 한다
- ②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한다
- ③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 ④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 ⑤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본다

<표 II-34>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인지적 특성	창의성	1.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	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10.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13.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 본다.

3) 사회적 역량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설정된 결과지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은 태도차원으로서의 사회적 신뢰감과 행위 능력차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술 및 친사회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신뢰감은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집단행동과 협조 및 협력이 기본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Putnam, 1993)’로 정의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신뢰감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 ② 주변에 믿고 의지할만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 ③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 ④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⑤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위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른 차하위영역에 비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먼저 사회적 신뢰감 내에서 조차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사회적 역량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본래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다. 내적일관성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유로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항과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라기보다는 사회적 불신을 측정하고 있다. 둘째, 누누이 지적되어온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부정진술문항(negatively worded items)이 내적일관성과 요인구조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셋째, ‘주변에 믿고 의지할만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문항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었다.

사회신뢰 연구의 대가인 Putnam에 따르면 사회신뢰는 크게 자기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 사회기관(혹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될 수 있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도 사회신뢰 부문에서 위의 내용구성에 기반한 조사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따라서 2006년 연구에서는 ‘자기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전반적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를 사회적 신뢰감의 내용으로 보고 문항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 ①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 ②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 ③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 ④ 나는 내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2)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외적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을 도와주기, 나누기, 위로하기 등이 포함된다(Shaffer, 2000; 허인숙, 유준상, 2004). 동기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행동적 이타주의라 할 때 친사회적 행동과 행동적 이타주의는 비슷한 의미가 된다. 2005년 연구에서도 친사회성을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려는 성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연구의 친사회성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 ②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 ③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 ④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 ⑤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편 사회적 기술이라 함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타인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며, 그것들에 기초하여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기술 측정 문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꺼낸다.
- ②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③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 ④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 ⑤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2005년도 연구에서 사회적 역량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던 ‘친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을 함께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단일요인으로의 수렴 가능성 때문이다. 사회신뢰감과는 달리 친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은 모두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차이는 사회적 기술이 좋은 대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개인의 의도적 행위를 말하는 반면 친사회성은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념이 모두 개인 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위한 구체적 행위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연구진의 검토 결과 2006년 연구에서는 ‘친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개별문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액면타당도 차원에서 현재 친사회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친사회성, 사회적 관습 및 도덕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혼용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1번과 2번 문항은 친사회성, 나머지 3, 4, 5문항은 사회적 관습이나 법 준수와 관련된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의 두 문항이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항인데 반하여 나머지 문항들은 사회적 규범에 관련된 문항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구조가 발견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또한 친사회성 측정문항은 다수의 부정진술문항(negatively worded item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문항 간의 상관(correlation), 더 나아가 내적일관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부정진술문항은 모두 사회적 규범의식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연구에서는 전체 다섯 개 문항 중 사회적 규범의식을 측정하는 세 개 문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는 세 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소위 사회생활(social life)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은 학교 내에서의 친구 혹은 동료 집단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 졌다. 그리고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된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문항은 다소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한편, 사회적 기술은 초기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 한번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 사회적 관계의 유지, 갈등해결 등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 첫 번째 문항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두 번째와 네 번째 문항은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그리고 나머지 문항은 갈등해결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자료 분석결과 네 번째 문항인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가 내적일관성과 요인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문항 자체의 내용적 성격 보다는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이었음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였다.

‘친사회성’과 ‘사회적기술’ 영역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2006년 최종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 ②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 ③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 ④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이야기 하는 편이다
- ⑤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 ⑥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 ⑦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표 II-35> 사회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사회적 역량	사회적 신뢰감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5. 나는 아무리 낮은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6.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4) 시민적 역량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2005년 연구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다른 영역에 비해 시민적 영역은 개념 자체의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성격¹³⁾으로 인해 시민의식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하위요인을 추출해내

13) 여기서 “가변적”이라 함은 시대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이념적, 도덕적 충돌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었다. 이론적 단계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은 2005년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시민의식의 측정속성들은 내적일관성과 요인구조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는 2005년 시민의식 측정문항들의 문제를 개념적 단계에서부터 다시 짚어 보고 2005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민의식 측정을 위한 최종 문항을 생산하고자 한다. 2005년 연구에서 시민의식은 ‘청소년인권의식’, ‘공동체의식’,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의식’, ‘국제화의식’, 그리고 ‘소비 및 경제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청소년 인권의식

2005년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인권의식’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람들은 재산/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 ②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③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 ④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먼저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문항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애매모호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즉 ‘교육적인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또한 ‘교육적인 차별’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내적일관성과 요인분석 결과 또한 교육적인 차별에 관한 문항은 전체 문항간의 내적일관성과 요인구조를 저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문항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개발되었으나 ‘선거권’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책결정’에의 참여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논의 되었다. 현실적으로 보건데, ‘인권’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이

승미(2000)에 따르면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검사영역으로 언론의 자유, 기회의 평등, 생존 및 보건의 권리,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생활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하위영역을 (그것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도 불가능 하겠지만) 망라하는 청소년 인권의식 측정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르는 작업이다.

청소년인권의식의 측정에서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복지국가발전’, 혹은 ‘제3의 길’ 등의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권(social rights)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권이란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초월하여 근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져야 할 최고수준의 적극적 권리로서 주로 국가로부터 시민에게 주어져야하는 교육, 의료, 실업 등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권을 의미한다.

‘교육적 차별’에 대한 액면타당도상의 지적과 사회권 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2006년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 ①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 ②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 ③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체의식

2005년 연구의 공동체의식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한다.
- ②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 ③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 ④ 나는 국가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 ⑤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 ⑥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문항들을 액면으로 볼 때 다섯 번째 문항(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다. 물론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이타심’으로, 애국심은 ‘국가주의적 사고’로 이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는 누누이 지적되어 온 부정진술문항(negatively worded item)의 문제점을 여기서도 보이고 있다. 마지막 문항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지나친 국가주의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2006년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보다는 ‘국가에 대한 태도’를 묻기 위하여 국가주의적 문항을 삭제하고 건강한 애국심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확정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 ②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 ③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3) 국제화의식

최근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화의식 또는 세계화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청소년의 국제화의식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 ②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우리 것/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의 문항을 살펴보면, 우선 두 번째 문항인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또한 국수주의적 뉘앙스를 지나치게 풍기고 있다. 외국의 것을 무조건 적으로 배격하는 사고는 어찌 보면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시대적 조류에 뒤쳐지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항자체가 지나치게 규범적인(too normative) 것도 지적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문항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원조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단순한 경제원조(식량원조 포함)와 군사적 원조는 매우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식량을 포함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과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국제화의식을 다루는 문항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이루어진 ‘청소년의 국제화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해외여행’ ‘해외유학’ ‘외국어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의 영역에서 문항들이 구성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는 이미 ‘청소년인권의식’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진 논의 결과 ‘해외여행’이나 ‘해외유학’, ‘외국어 필요성 및 실력’ 등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제 3의 변수에 의한 상당수준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로서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2006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국제화의식을 ‘외국 산에 대한 태도’와 ‘외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으로 단순화시켜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 ①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②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4) 공동체의식

앞에서 논의되었다시피 2005년 연구의 ‘공동체의식’은 2006년 연구에서는 ‘국가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덕목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 또는 공동선에 대한 책임의식 등은 여전히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공동체 속에서 주민성(local citizenship)과 세계화 시대의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정체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은 넓은 의미의 ‘공동체의식’으로 명명가능하다. 2006년 연구에서는 주민성과 세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 ①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 ②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5) 사회참여의식

청소년의 사회참여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희성, 2005).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역량까지를 의미한다. 최근 청소년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

는 청소년 임파워먼트(youth empowerment)의 여러 차원 중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라든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치/사회 부문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논의하기 힘든 주제로 간주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Bozzer, 2000; Hinnant, 2001; Chinman & Linney, 1988)에 따르면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들 스스로도 참여의 결과 보다는 과정에서 인지적 발달을 거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사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구체적 자산은 기술습득, 심리사회적 발달, 자아발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성장이다(김희성, 2005).

과거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 참여의 측정은 행위차원의 변수들(e.g., 얼마나 열심히 참여활동을 하는지 여부, 참여활동의 기간)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진학을 위한 학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인 고1,2학년 학생들)에게 실제 참여행위를 통해 그들의 사회참여의식을 측정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참여 의식을 과소측정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 자체가 고등학생들의 내신성적에 포함이 되는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실제 행위를 통한 의식의 분석은 진실의 왜곡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크게 ‘대외적 활동’과 ‘자치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교내문제에 대한 참여, 정책형성예의 참여, 봉사활동을, 후자에는 스스로의 경제적 활동과 여가문화행사에 대한 참여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실제 참여 정도가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묻고자 한다. 조사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 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
(교칙제정 등)
- ②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 ③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
(봉사활동 등)
- ④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아르바이트 등)
- ⑤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 등)

(6) 소비 및 경제의식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의 소비 및 경제의식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② 장래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 ③ 우리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
- ④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 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문항의 구성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청소년의 ‘소비 및 경제의식’이라고 하는 시민적 역량의 하위요인은 그 자체가 이미 단일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며 건전한 소비의식, 사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부에 대한 의식, 사업가에 대한 의식,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일관성과 요인구조 분석 결과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바 크다.

문항들에 대한 액면타당도 검토 결과 이처럼 일정 상이한 개념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와 요인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은 설사

우수한 측정속성들을 보인다고 할지라고 이론적으로 무의미할 뿐 아니라 극단적 귀납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문항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며, 이념적(응답자의 사회정치적 관점)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주제들이다. 예를 들어 사업가 정신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반드시 창업을 해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청소년의 긍정적 경제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연구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소비의식 측정문항만을 채택하였다.

①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표 II-36> 시민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시민적 역량	인권의식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 대한 태도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국제화 의식	8. 외국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9.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1. 나는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사회참여 의식	12.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13.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14.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15.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아르바이트 등)
		16.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 등)
	건전한 소비의식	17.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5) 진로 및 직업 역량 문항 검토 및 최종 지표 생산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의 형성과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여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5)’를 의미한다. 2005년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진로준비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 역량을 진로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행동 등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진로선택의 주도성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진로선택의 주도성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 ②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 ③ 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2005년 조사자료 분석 결과 진로선택 주도성 측정문항들은 내적일관성이 나 요인구조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나 직

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문항의 타 문항과의 낮은 상관은 부정진술문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자 회의 결과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문항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두 개의 내용이 하나의 문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두개의 문항으로 분리하였다. 최종 확정된 진로선택 주도성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 할 것이다
- ②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 ③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2) 직업적 특성 이해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직업적 특성 이해 측정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2005년 자료 분석 결과 측정속성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 ①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 ②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③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직업정보탐색 및 진로준비행동

2005년 연구에 사용된 직업정보탐색과 진로준비행동 측정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직업정보탐색

- ① 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② 나는 홍보물, 팜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 ③ 나는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본 적이 있다.

* 진로준비행동

- ① 지난 1년 동안 나는 학교 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 ② 지난 1년 동안 나는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 ③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두 개의 차하위영역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2005년 자료 분석 결과 두 개의 영역이 하나의 요인으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 또한 넓은 의미의 진로준비행동으로 볼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홍보물, 팜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문항은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문항임이 드러났다. 또한 직업정보 탐색의 ‘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문항과 진로준비행동의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진로준비행동 측정 문항들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 ① 나는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② 나는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 해 본 적이 있다
- ③ 지난 1년 동안 나는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 ④ 지난 1년 동안 나는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표 II-37> 진로 및 직업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진로 및 직업 역량	진로 선택의 주도성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해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진로준비 행동	7.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 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10.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3. 2006년 조사분석 결과

1) 조사개요

(1) 설문구성(questionnaire construction)

설문구성을 위해서는 2005년 청소년발달지표연구(김현철·김신영, 2005)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별 문항들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되, 2006년 6월 실시된 평가워크숍을 통해 측정속성 등에 있어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이론적·방법론적 정합성에 비추어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이 구성하였다(첨부 설문지 참조). 이 설문을 바탕으로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말 예비조사(pretest)를 한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최종 설문을 확정하였다.

본 설문의 중점내용인 청소년발달의 각 하위영역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타당화(validations) 시도를 위해 학생의 성적, 교내외 활동, 가족관계, 계층귀속감, 종교, 비행, (학교)생활만족도 등이 설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2) 표집(sampling)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고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들인데, 이들을 표집하기 위해 일단 고등학교를 먼저 표집하고 다시금 해당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표집하는 2단계 표집전략을 사용하였다. 먼저 고등학교를 표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장중인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였는데, 모두 세 가지 표집기준—학교유형별(일반계, 실업계), 성별(남고, 여고, 남녀공학), 지역별(광역단체 기준)—을 동원하여 총 30개 고등학교를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정하였다. 연이어, 선정된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각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학교별 조정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학교의 성격이나 그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965명의 학생들이 조사되었는데, 표집된 이 학생들의 학교유형별, 성별, 학년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38>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	%
성별	여학생	910	46.3
	남학생	1055	53.7
학년	1학년	983	50.0
	2학년	982	50.0
학교계열	인문계	1480	75.3
	실업계	485	24.7
합계		1965	100.00

(3) 현지조사(fieldworks)

현지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 Survey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 센터는 학술적 사회조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사기관으로서, 방법론적으로 엄정한 전국표집조사(national sample surveys) 및 국제협력조사(international collaborative surveys)로 정평이 난 조사 및 연구 기관이다.

실제 조사를 위해서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른바 〈전국협력조사팀〉이 동원되었는데, 이 조사팀은 사회조사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실습 경험을 보유한 전국 십여 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조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금번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인근 수련원에서 2006년 9월 2~3일 양일간 조사의 목적 및 세부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조사원교육(OT)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원교육 전에 동 센터에서는 표집된 각 학교의 책임자들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로 접촉해서 조사 협조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전화 접촉 과정에는 동 센터가 섭외한 전문컨택트요원이 동원되었으며, 이 요원은 한

국청소년개발원의 협조공문을 팩스 등으로 송부해가면서 협조 요청 및 일정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10개 학교(서울 5개교, 경기 2개교, 전북 1개교, 경북 1개교, 부산 1개교)는 학사일정 등 교내 사정을 이유로 조사협조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 표집의 전체 과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인접 학교로 대치하는 조정 및 시도가 이루어졌다.

조사원교육을 이수한 조사원들은 각자 맡은 학교를 일주일(9월 4일~8일) 이내에 방문하여 학교담당자(교장, 교감 등)를 만난 후 해당 학급을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팀은 2인 1조로 이루어져 2명의 조사원이 한 학교를 일시에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들 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사전에 준비한 조사협조공문을 제시하고, 학교담당자 및 학교교사, 그리고 응답대상 학생들 각각에게 소정의 답례품(incentives)을 전달한 후 조사에 임하였다.

설문을 기입하는 방식은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을 사용하였다. 자기기입 응답이 이루어질 경우 응답의 완결성(response completeness)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보정기제를 구비하였는데, 그 하나는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담당교사가 현장에 위치해서 조사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사원들이 조사시간 내내 여러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조처한 것이다. 이러한 보정기제는 응답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질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조사원교육을 통해 각 조사원은 조사가 끝나는 즉시 모든 설문지를 서베이리서치센터로 즉각적으로 우송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동 센터에 우송된 설문지들은 연구진에 의한 편집(editing), 코딩(coding), 펀칭(punching) 등 일련의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서 신속히 전산화되었다.

2) 신뢰도분석

(1) 정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의 내적일관성¹⁴⁾을 보여 주었다(자아개념 = .698, 행복감 = .747, 목표지향성 = .843). 특히 행복감과 목표지향성의 경우는 문항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모든 차하위영역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39> 정의적 특성 - 자아개념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5			
문1	1.000	.270	.296	.198	.500	.440	.290	.698
문2		1.000	.371	.292	.228	.407	.184	
문3			1.000	.438	.291	.514	.285	
문4				1.000	.323	.445	.248	
문5					1.000	.477	.307	

<표 II-40> 정의적 특성 - 행복감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6	문7	문8			
문6	1.000	.422	.612	.602	.628	.747
문7		1.000	.459	.490	.739	
문8			1.000	.634	.593	

14) 모든 차하위영역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a 값을 통해 산출되었다.

<표 II-41> 정의적 특성 - 목표지향성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9	문10	문11			
문9	1.000	.611	.548	.617	.863	.843
문10		1.000	.760	.783	.706	
문11			1.000	.733	.757	

(2) 인지적 특성

인지적 특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의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다(창의성 = .665, 학습준비도 = .636, 문제해결능력 = .828). 특히 행복감과 목표지향성의 경우는 문항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인지적 특성 또한 정의적 특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문항도 내적일관성을 저해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 인지적 특성 - 창의성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1	1.000	.414	.218	.379	.454	.593	.665
문2		1.000	.377	.337	.519	.551	
문3			1.000	.270	.374	.644	
문4				1.000	.442	.601	

<표 II-43> 인지적 특성 - 학습준비도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5	문6	문7	문8			
문5	1.000	.313	.466	.269	.481	.519	.636
문6		1.000	.390	.153	.379	.598	
문7			1.000	.269	.533	.492	
문8				1.000	.295	.649	

<표 II-44> 인지적 특성 - 문제해결능력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9	문10	문11	문12	문13			
문9	1.000	.477	.517	.433	.352	.554	.813	.828
문10		1.000	.601	.503	.418	.636	.791	
문11			1.000	.594	.457	.703	.771	
문12				1.000	.564	.677	.779	
문13					1.000	.561	.814	

(3)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두 가지 하위영역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의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다(사회신뢰감 = .632,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 = .815). 2005년 연구와 달리 2006년 연구에서는 ‘친사회성’과 ‘사회적기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두 개념간의 상관은 매우 높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

<표 II-45> 사회적 역량 - 사회적신뢰감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1	1.000	.318	.232	.221	.339	.615	.632
문2		1.000	.257	.473	.495	.504	
문3			1.000	.310	.357	.600	
문4				1.000	.462	.524	

<표 II-46> 사회적 역량 -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

	문항간 상관							문항전 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문11			
문5	1.000	.396	.470	.367	.308	.276	.298	.500	.799	.809
문6		1.000	.543	.380	.517	.300	.437	.620	.772	
문7			1.000	.449	.575	.319	.478	.696	.757	
문8				1.000	.478	.215	.349	.532	.786	
문9					1.000	.320	.392	.619	.772	
문10						1.000	.229	.383	.811	
문11							1.000	.513	.790	

(4) 시민적 역량

시민적 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¹⁵⁾은 문항수를 고려할 때 나름대로 양호한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인권의식 = .581, 국가에 대한 태도 = .473, 공동체의식 = .451, 국제화의식 = .433, 사회참여의식 = .653). 특히 문항수가 두 개인 ‘공동체의식’과 ‘국제화의식’의 신뢰도 수준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참여의식의 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이 각 신뢰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표 II-47> 시민적 역량 - 인권의식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1	1.000	.338	.213	.235	.366	.513	.581
문2		1.000	.253	.245	.401	.480	
문3			1.000	.294	.344	.525	
문4				1.000	.359	.519	

15) “건전한 소비의식”은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내적일관성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II-48> 시민적 역량 - 국가에 대한 태도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5	문6	문7			
문5	1.000	.285	.157	.280	.402	.473
문6		1.000	.252	.350	.268	
문7			1.000	.260	.438	

<표 II-49> 시민적 역량 - 공동체의의식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8	문9			
문8	1.000	.293	.293		.451
문9		1.000	.293		

<표 II-50> 시민적 역량 - 국제화의의식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0	문11			
문10	1.000	.283	.283		.433
문11		1.000	.283		

<표 II-51> 시민적 역량 - 사회참여의식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5			
문1	1.000	.556	.334	.141	.242	.482	.563	.652
문2		1.000	.341	.121	.246	.476	.565	
문3			1.000	.194	.259	.419	.592	
문4				1.000	.300	.269	.662	
문5					1.000	.387	.607	

(5) 진로 및 직업 역량

진로 및 직업역량의 세 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진로선택의 주도성’과 ‘직업적특성이해’의 항목들은 매우 양호한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다(진로선택의 주도성 = .815, 직업적특성이해 = .907). ‘진로준비행동’ 측정문항들은 문항의 수를 고려할 때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결과이긴 하나 앞의 두 영역과 비교할 때 낮은 내적일관성($\alpha = .555$)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추측가능한데, 첫째 실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으며, 둘째, 학교 내에서의 직업상담이 진로준비행동의 대부분이며 관심직업 분야의 전문가를 만난다든가 직업체험을 해 본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어느 한 문항도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특기할 만하다.

<표 II-52> 진로 및 직업 역량 - 진로선택의주도성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1	문2	문3			
문1	1.000	.628	.592	.688	.723	.815
문2		1.000	.567	.670	.744	
문3			1.000	.643	.770	

<표 II-53> 진로 및 직업 역량 - 직업적특성이해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4	문5	문6			
문4	1.000	.722	.760	.779	.895	.907
문5		1.000	.812	.818	.864	
문6			1.000	.846	.838	

<표 II-54> 진로 및 직업 역량 - 진로준비행동

	문항간 상관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7	문8	문9	문10	문11			
문7	1.000	.232	.153	.140	.404	.374	.464	.555
문8		1.000	.194	.287	.227	.367	.478	
문9			1.000	.202	.127	.253	.549	
문10				1.000	.101	.276	.522	
문11					1.000	.342	.484	

3) 판별-수렴 타당도 분석 I

(1) 탐색적 요인분석 - 정의적 특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아개념’, ‘행복감’, 그리고 ‘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차하위영역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애초에 의도되었던 영역들로 모두 수렴되며, 다른 영역과는 판별이 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II-55>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정의적 특성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자아개념1	-.053	.136	.784
자아개념2	.318	.038	.515
자아개념3	.353	.117	.575
자아개념4	.500	.070	.450
자아개념5	.061	.199	.740
행복감1	.737	.195	.266
행복감2	.764	.042	-.019
행복감3	.787	.197	.138
목표지향성1	.274	.729	.236
목표지향성2	.095	.905	.121
목표지향성3	.075	.893	.103

Variance Explained	36.1%	14.1%	11.2%

(2) 탐색적 요인분석 - 인지적 특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창의성’, ‘학습준비도’,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의 세 가지 차하위영역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애초에 의도되었던 영역들로 모두 수렴되며, 다른 영역과는 판별이 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II-56>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인지적 특성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창의성1	.059	-.006	.754
창의성2	.118	.395	.648
창의성3	.085	.151	.590
창의성4	.002	.074	.721
학습준비도1	.114	.733	.151
학습준비도2	.256	.478	.251
학습준비도3	.084	.775	.247
학습준비도4	.230	.580	-.069
문제해결능력1	.643	.301	.103
문제해결능력2	.751	.183	.071
문제해결능력3	.827	.100	.096
문제해결능력4	.803	.123	.070
문제해결능력5	.721	.095	.001

Variance Explained	31.3%	14.8%	8.4%

(3) 탐색적 요인분석 - 사회적 역량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신뢰감’과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의 두 가지 차하위영역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애초에 의도되었던 영역들로 모두 수렴되며, 다른 영역과는 판별이 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II-57>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사회적 역량

변 수	요인1	요인2
사회적 신뢰감1	.271	.524
사회적 신뢰감2	.231	.725
사회적 신뢰감3	.022	.653
사회적 신뢰감4	.064	.769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1	.644	.048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2	.730	.181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3	.810	.114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4	.679	.053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5	.747	.133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6	.465	.203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7	.616	.251
Variance Explained	35.3%	13.12%

(4) 탐색적 요인분석 - 시민적 역량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인권의식’과 ‘국가에 대한 태도’, ‘공동체의식’, ‘국제화의식’, ‘사회참여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애초에 의도되었던 영역들로 모두 수렴되며, 다른 영역과는 판별이 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II-58>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시민적 역량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인권의식1	-.203	.715	.117	-.067	.166
인권의식2	-.058	.615	.105	.401	.168
인권의식3	.330	.616	.042	.001	-.021
인권의식4	.260	.627	.071	.019	-.047
국가에대한태도1	.106	.145	.618	.033	-.206
국가에대한태도2	.092	.127	.687	-.041	-.205
국가에대한태도3	-.058	-.046	.658	.008	.184
공동체의식1	-.038	.062	.183	.341	.443

공동체의식2	.105	.168	.360	.201	.520
국제화의식1	.106	.086	-.169	.751	.005
국제화의식2	.141	-.081	.085	.655	-.078
사회참여의식1	.783	.101	.011	.142	.165
사회참여의식2	.816	.092	.042	.100	.137
사회참여의식3	.404	.041	.241	.228	.412
사회참여의식4	.758	.086	-.035	-.057	.045
사회참여의식5	.671	.046	.054	.071	.246
Variance Explained	20.1%	9.9%	8.3%	7.7%	.6.6%

(5) 탐색적 요인분석 - 진로 및 직업 역량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진로선택의 주도성’, ‘직업적특성이해’,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세 가지 차하위영역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애초에 의도되었던 영역들로 모두 수렴되며, 다른 영역과는 관별이 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II-59>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EFA) - 진로 및 직업 역량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주도성1	.226	.834	.054
주도성2	.097	.870	-.011
주도성3	.257	.790	.072
직업적특성이해1	.857	.214	.109
직업적특성이해2	.891	.192	.081
직업적특성이해3	.896	.216	.108
진로준비행동1	.027	.054	.604
진로준비행동2	.089	.003	.733
진로준비행동3	.380	.080	.421
진로준비행동4	.069	-.002	.676
Variance Explained	36.6%	15.7%	11.8%

4) 판별-수렴타당도 분석 II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판별 및 수렴타당도의 확인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구성타당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측정항목(문항)들 간에 존재하는 요인구조에 대하여 경험적 자료만을 근거로 추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정문항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적 분석 이전에 선형적 개념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각 영역의 문항들이 어떠한 하위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실시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드러난 요인구조를 가설로 설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에 일정한 선형적이고 개념적인 가설들을 설정한 후 주어진 자료가 어느 가설에 가장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좀 더 발전된 구성타당도 확인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제시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표에 따르면 각각의 영역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설정된 요인구조들은 매우 뛰어난 모형부합정도(model fit to the data)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각 영역의 요인구조들이 주어진 자료와 양호한 수준에서 부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 II-60> 영역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표- 적합도 지수¹⁶⁾를 중심으로

	χ^2	d.f	NFI	IFI	TLI	RMSEA)
정의적 특성	749.728 (58781.052) ¹⁷⁾	44 66	.987	.988	.982	.090
인지적 특성	703.658 (72455.019)**	65 91	.990	.991	.988	.071
사회적 역량	404.667 (59121.769)**	45 66	.993	.994	.991	.064
시민적 역량	1754.36 (90819.607)**	109 136	.981	.982	.977	.088
진로 및 직업역량	228.225 (60082.014)**	35 55	.996	.997	.995	.053

5) 예측타당도 평가

각 차하위영역별로 합산변인을 구성한 후 이를 세 가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 계열,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과 비행정도¹⁸⁾, 부모와의 관계, 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 등의 변수들과 결부시켜 예측타당도를 평가하였다.

(1) 정의적 특성

① 자아개념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하여

16) NFI(Normed Fit Index), IFF(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ximation) 모두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앞의 세 개의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포화모형에 가까워지고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독립모형에 가까워지며 좋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RMSEA는 일반적으로 0.1이하인 경우 주어진 모형을 채택하게 된다.

17) Independent Model

1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비행은 지위비행(status misdemeanor), 성적비행(sexual deviance), 가해성비행(violent delinquency)로 나누어졌다.

인문계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성비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의 방향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즉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학업성취가 높고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은 고1학생이 고2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계열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성비행과 성적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의 방향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즉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지위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학업성취가 높고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목표지향성

청소년의 목표지향성은 성별, 계열별, 학년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해성비행과 성적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의 방향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즉 자신이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지위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학업성취가 높고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1> 정의적 특성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성별		학년별		계열별		부모 와의 관계	지위 비행	성적 비행	가해성 비행	부모 학력	생활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사회 계층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자아개념	N=1047 M =16.231 SD=3.178	N=906 M =15.842 SD=2.928	N=974 M =16.050 SD=3.118	N=979 M =16.051 SD=3.024	N=1472 M =16.164 SD=3.079	N=481 M =15.705 SD=3.021	348**	-1.01**	-.059**	-.029	.104**	4.65**	3.51**	.185**	.166**
	t =2.797* (.005)		t = -.006(.996)		t =2.852** (.004)										
행복감	N=1048 M =9.043 SD=2.604	N=905 M =8.903 SD=2.510	N=978 M =9.103 SD=2.581	N=975 M =8.852 SD=2.536	N=1473 M =8.980 SD=2.541	N=480 M =8.973 SD=2.623	339**	-.113**	-.026	-.053*	.059*	.612**	4.32**	.066**	.169**
	t = -1.206(.228)		t =2.167* (.030)		t = .050(.960)										
목표 지향성	N=1049 M =10.105 SD=3.032	N=908 M =10.282 SD=3.073	N=978 M =10.262 SD=3.018	N=979 M =10.112 SD=3.085	N=1474 M =10.239 SD=3.047	N=483 M =10.029 SD=3.062	263**	-.053*	-.042*	-.035*	.102**	.320**	.185**	.091**	.086**
	t = 1.280(.201)		t = 1.083(.279)		t =1.312(.190)										

**p<.001, *p<.05

(2) 인지적 특성

① 창의성

청소년의 창의성은 성별, 계열별, 학년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창의적 특성이 가행성비행이나 지위비행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창의적인 청소년일수록 가행성비행이나 지위비행을 많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습준비도

청소년의 학습준비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행을 포함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의 방향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즉 학습준비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학업성취가 높고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문제해결능력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실업계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성별, 학년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비행을 제외한 모든 다른 변수들과 유의미하고 이해가능한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낮으며(성적비행 제외) 학업성취가 높고,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인지적 특성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성별		학년별		제영별		부모 와의 관계	지위 비행	성적 비행	가해성 비행	부모 학력	생활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사회 계층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창의성	N=1051 M =14.797 SD=2.626	N=909 M =14.883 SD=2.576	N=980 M =14.915 SD=2.616	N=980 M =14.759 SD=2.583	N=1477 M =14.886 SD=2.624	N=483 M =14.684 SD=2.522	.097**	.091**	.008	.076**	.053*	.040	-.038	-.013	.000
	t = 732(.465)		t = 1.329(.184)		t = 1.460(.145)										
학습 준비도	N=1048 M =13.930 SD=2.745	N=905 M =14.440 SD=2.696	N=974 M =14.111 SD=2.754	N=979 M =14.222 SD=2.713	N=1471 M =14.275 SD=2.720	N=482 M =13.836 SD=2.752	.249**	-.047*	-.050*	-.049*	.074**	.225**	.145**	.104**	.062*
	t = 4.124** (.000)		t = -.895(.371)		t = 3.063** (.002)										
문제 해결 능력	N=1046 M =14.766 SD=3.840	N=907 M =14.732 SD=3.747	N=975 M =14.774 SD=3.725	N=978 M =14.726 SD=3.868	N=1471 M =14.853 SD=3.755	N=482 M =14.436 SD=3.908	.177**	-.062**	.003	-.055*	.052*	.173**	.136**	.162**	.075**
	t = -.196(.845)		t = 2.82(.778)		t = 2.097* (.036)										

**p < .01, *p < .05

(3) 사회적 역량

① 사회적 신뢰감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감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학업성취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의 방향 또한 예측과 일치하였다. 즉 사회적 신뢰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청소년의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별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학업성취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관계의 방향에서는 재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청소년의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과 비행정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이 그것이다. 이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의 동조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이고 사회적 기술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 또한 높으며 생활(학교생활 포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3> 사회적 역량 하위차원들의 동반타당도

	성별		학년별		제출별		부모와의 관계	지위 비행	상적 비행	가해성 비행	부모 학력	생활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사회 계층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사회적 신뢰감	N=1051 M=11.914 SD=2.680	N=908 M=12.144 SD=2.490	N=980 M=12.106 SD=2.638	N=979 M=11.956 SD=2.551	N=1476 M=12.089 SD=2.588	N=483 M=11.812 SD=2.611	.246**	-.063**	-.045*	-.066**	.060*	.360**	.328**	.004	.189**
	t = 1.956(.051)		t = 1.454(.146)		t = 2.044(.041)										
사회적 기술 및 친사회성	N=1052 M=22.337 SD=4.521	N=908 M=22.426 SD=4.520	N=978 M=22.449 SD=4.619	N=982 M=22.308 SD=4.420	N=1475 M=22.592 SD=4.544	N=485 M=21.726 SD=4.386	.265**	.130**	.057*	.127**	.096**	.294**	.240**	-.016	.190**
	t = 4.338(.000)		t = 6.92(.000)		t = 3.675**(.000)										

**p<.01, *p<.05

(4) 시민적 역량

① 인권의식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차이는 없었다.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권의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낮았다. 그밖에 부모의 학력, 주관적 사회계층,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등은 인권의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국가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는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실업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 비해 2학년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에 대한 태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지위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학력, 성적 혹은 가해성 비행, 학업성취 등은 국가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③ 공동체의식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실업계 학생 보다 인문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적비행, 부모학력, 그리고 주관적 사회계층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공동체 의식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지위비행이나 가해성비행의 정도가 낮고,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고 학업성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국제화 의식

청소년의 국제화 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의 방향 또한 예측과 일치하였다. 즉 국제화의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낮으며,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고 스스로를 높은 위치의 사회계층으로 생각하고, 학업성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사회참여의식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 학업성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 즉 부모와의 관계, 비행정도, 주관적 사회계층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참여의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비행의 정도가 약하며,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위치를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6-4> 시민적역량 하위차원들의 등반타당도

	성별		학년별		제출별		부모와의 관계	치위 비행	성적 비행	가해성 피해	부모 강력	생활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사회 적응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인간·의식	N=1035 M=15.433 SD=2.956	N=909 M=15.999 SD=2.587	N=982 M=15.734 SD=2.852	N=982 M=15.677 SD=2.756	N=1480 M=15.774 SD=2.738	N=484 M=15.498 SD=2.988	.128**	-.082**	-.102**	-.060**	-.012	.016	.012		-.036
	t = 4.321** (0.000)	t = 4.511** (0.000)	t = 4.511** (0.000)	t = 4.511** (0.000)	t = 1.879 (0.060)	t = 1.879 (0.060)									
국가·에 대한 태도	N=1035 M=9.941 SD=2.348	N=909 M=9.949 SD=2.003	N=982 M=10.040 SD=2.187	N=982 M=9.850 SD=2.199	N=1480 M=9.890 SD=2.221	N=484 M=10.114 SD=2.103	.171**	-.045**	-.037	-.044	-.014	.228**	.239**	-.006	.054
	t = .082 (0.935)	t = .082 (0.935)	t = 1.914 (0.056)	t = 1.914 (0.056)	t = -.1949 (0.051)	t = -.1949 (0.051)									
공동체 의식	N=1035 M=6.274 SD=1.776	N=908 M=6.245 SD=1.586	N=981 M=6.263 SD=1.687	N=982 M=6.256 SD=1.695	N=1479 M=6.349 SD=1.672	N=484 M=5.990 SD=1.719	.132**	-.049*	-.028	-.085**	.044	.150**	.139**	.108**	.010
	t = -.385 (0.701)	t = -.385 (0.701)	t = .124 (0.902)	t = .124 (0.902)	t = 4.074** (0.000)	t = 4.074** (0.000)									
국제·화 의식	N=1033 M=7.719 SD=1.679	N=908 M=7.978 SD=1.545	N=981 M=7.653 SD=1.656	N=980 M=8.025 SD=1.568	N=1478 M=7.989 SD=1.562	N=483 M=7.379 SD=1.720	.176**	-.131**	-.088**	-.055*	.147**	.121**	.090**	.213**	.077**
	t = 3.535** (0.000)	t = 3.535** (0.000)	t = 5.094** (0.000)	t = 5.094** (0.000)	t = 7.269** (0.000)	t = 7.269** (0.000)									
사회 참여 의식	N=1030 M=15.501 SD=2.246	N=906 M=16.245 SD=1.980	N=976 M=15.695 SD=2.199	N=980 M=15.996 SD=2.108	N=1472 M=15.998 SD=2.135	N=484 M=15.382 SD=2.166	.160**	-.077**	-.068**	-.049**	.043	.006	.001	.016	-.066**
	t = 7.715** (0.000)	t = 7.715** (0.000)	t = 3.093** (0.002)	t = 3.093** (0.002)	t = 5.484** (0.000)	t = 5.484** (0.000)									

**p<.01, *p<.05

(5) 진로 및 직업역량

① 진로선택의 주도성

청소년의 진로선택의 주도성은 성별, 계열별, 학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위비행, 부모의 학력,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과 가정의 사회계층들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진로선택의 주도성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성적비행이나 가해성비행의 정도가 낮고,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학업성취 또한 높게 나타났다.

② 직업적 특성 이해

청소년의 직업적 특성 이해 정도는 1학년 학생에 비하여 2학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계열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학력, 생활만족도 및 사회계층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으며,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과 가정의 사회계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③ 진로준비행동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계열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비행정도, 생활만족도, 주관적 사회계층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며, 비행의 정도가 낮고,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정도와 비행의 정도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10-65> 진로 및 직업역량 하위차원들의 동태타당도

	성별		학년별		계열별		부모와의 관계	지각 비행	상식 비행	가해성 피해	부모 학력	생활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사회 적응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진로선택 주도성	N=1054 M =12.777 SD=2.070	N=909 M =12.931 SD=1.910	N=982 M =12.934 SD=1.967	N=981 M =12.763 SD=2.027	N=1478 M =12.873 SD=2.021	N=485 M =12.771 SD=1.928	.147**	-.007	-.070**	-.055**	.040	.119**	.074**	.057**	.024							
	t = 1.699(.089)																t = 979(.328)					
직업적 특성이해	N=1052 M =10.610 SD=3.085	N=909 M =10.776 SD=3.101	N=982 M =10.950 SD=2.976	N=979 M =10.423 SD=3.185	N=1476 M =10.720 SD=3.111	N=485 M =10.586 SD=3.037	.205**	.018	-.017	-.001	.101**	.188**	.097**	-.026	.085**							
	t = 1.180(.238)																t = 832(.406)					
진로 준비 행동	N=1504 M =4.878 SD=1.010	N=909 M =4.925 SD=1.022	N=981 M =4.894 SD=1.011	N=982 M =4.905 SD=1.021	N=1478 M =4.876 SD=1.011	N=485 M =4.973 SD=1.025	.118**	.106**	.073**	.074**	.044	.111**	.033	-.033	.051**							
	t = -.247(.805)																t = -.839(.066)					
	t = 1.035(.301)																					

** p < .01, * p < .05

(6) 종합논의

동반타당도를 포함한 예측타당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차
하위요인들이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나 가정환경, 비행, 생활만족도, 학업
성취 등의 변수들과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몇 가지 일관
된 발견들을 요약하자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는 인문
계 학생들이, 1학년 보다는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의 발달영역에서 우월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많은 청소년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변수들
(e.g., 가족배경, 비행,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등)이 청소년 발달을 측정하는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달지표의 예측타당도 측면에
서 볼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환경변수로서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발달의 최종결과물로서 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 등은 거의 모든 발달지표들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Ⅲ. 결 론

여기서는 ‘2006 청소년발달지표연구 I’의 두 가지 연구주제 가운데 청소년 발달 결과 부문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청소년발달의 결과 부문에 대한 논의는 2003년에 시작된 ‘청소년발달지표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부문 지표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2005년도부터 출발하였다. 청소년발달지표 가운데 발달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들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2005년 연구를 통하여 생산된 총 다섯 개 영역, 14개 차하위영역들에 대한 지표들은 전국표본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 되었으나 아쉽게도 지표의 측정속성상 2005년 연구의 결과물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지표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산된 지표가 얼마나 양질이나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진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들에서는 해마다 광범위한 내용들에 대하여 많은 양의 청소년 관련 조사 결과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의 일관되지 못함, 조사설계의 미진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조사도구의 문제점, 다시 말해 측정문항들의 지표로서의 통계적 속성에 대한 검토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귀중한 조사 자료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학이나 심리학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의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정책적 개입의 결과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장 먼저 천착한 지점은 2005년 조사결과의 엄밀한 재분석이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2005년 보고서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정속성 분석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분석결과 2005년도의 조사 자료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보였다. 차하위영역의 내적일관성과 배경변수들과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결과(e.g., 차하위영역의 요인구조, 각 영역의 요인구조 등)들은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분석결과에 의한 부분적 문항의 조정’이 아닌 ‘청소년발달 결과의 각 영역과 차하위영역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별 연구진의 관련 문헌 검토와 수십 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거쳐 새로운 조사도구가 확정되었다. 검토결과, 기초적인 액면타당도에서부터 문제를 보이는 문항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2005년 연구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었다. 또 각 영역내 차하위영역들의 구분 또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도구의 속성을 검증하는 일이었다. 조사작업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표본추출에서부터 최종자료정리(data cleaning)까지 어느 것 하나 조사방법론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수행되었음을 본 연구진은 자신한다.

2006년 조사자료의 분석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 차하위영역의 내적일관성, 발달부문 각 영역의 요인구조, 그리고 주요변수들과의 상관 등은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청소년의 발달부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별 차하위영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생산은 보고서 2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개발이란 ‘원천적 불가능에의 끊임없는 도전’이다. 이는 완벽한 측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측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재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비록 올해의 연구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2006년 개발된 측정도구가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속되는 지표의 타당화 작업을 통한 보다 나은 지표로의 발전은 이 후 연구의 몫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경기도(1998). 경기사회지표. 경기: 경기도
경찰청(각년도).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성희(1990).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외 역 (2004). 교육심리학. 박학사
- 김애순 · 윤진.(1995) 은퇴이후의 심리 · 사회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15, No.1. 141-158.
- 김정주(1997). 미국의 청소년지표 1996. 청소년연구, 9(1). 147-184
- 김희성(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순(2003). 청소년정책과 행정, 그 틈을 위해 필요한 노력. 청소년문화포럼, 2003년 여름호 통권7호, 108-156.
- 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1997). 청소년 위기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00).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1). OECD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1).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0).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이중(1996). 청소년학개론: 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대검찰청(2000).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백서. 서울: 대검찰청.
- 문화관광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 (1998).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 (2003). 제3차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용현(1974).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 보건복지부(2000). 99 보건복지 주요행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서국희, 조맹제(1997). 지역사회거주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율. *정신의학*, 22(2), 11-24.

- 성태제(2005). 타당도와 신뢰도. 학지사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오현석(2003).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이해.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제 1장. 5-34.
- 윤명희 외(2003). 웹기반 창의성 성향검사 개발. 교육학연구, 41(3). 519-539.
- 이용남 외(2004). 교육 및 상담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숙 (1996). 주장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불안감소 및 자기표현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장호. (1982).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이철위(2003). 청소년참여의 실상과 과제. 21세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 현황진단과 정책과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편, 730-121.
- 장문봉(2000). 지식창조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1999).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지 및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조영승(2003).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 청소년문화포럼, 2003년 여름호 통권7호, 15-28.
- 청소년위원회(2001).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2).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5). 2005 청소년백서. 청소년위원회.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서울: 체육청소년부.
- 최인숙(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17(1). 25-47.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http://www.nso.go.kr>.
- 하대현(1996). 인간지능이론과 연구의 최근동향. 교육심리연구, 10(1). 127-161.
- 하주현(2001). 창의성발달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39-156.
- 한국교육개발원(198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6). 한국교육통계의 세계표준화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7).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2). 인적자원지표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각년도).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사회지표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4).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5). 한국청소년개발지표 연구 II :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학회(2000). 21세기 청소년포럼: 새로운 세기의 청소년상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체육과학연구원(1994). 체육지표의 체계모형개발 및 기초조사연구. 서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1997).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상철 외(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함병수 외(2004).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허인숙, 유준상(2004). 친사회적 행동과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 허혜경(2001). 성인지능의 본질 및 검사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9(1). 25-68.

<국외 문헌>

- Acher, S. R., Hymel, S., &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Children's Loneliness Scale.
- Andrews,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wnum Press.
- Amabile, T. M. (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In B. M. Staw, & L.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0. 123-167. Greenwich, CT: JAI Press.

- Ames, C. (1992). Classroom: Goals, structure,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rron, F. & Harrington, D.M.(1981).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 Bauer, R. A.(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Benson, P.L., and Pittman, K. J.(2001). *Trend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ozzer S. *Youth Empowerment: A Qualitative Study*. University of Manitoba. Master Thesis.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J. S. Scott(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CA: Sage Publications, Inc.
- Browne, M. W., Cudeck, R., Tateneni, K. & Mels, G. (2004).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sion 2.00. <http://quantrm2.psy.ohio-state.edu/browne/>
- California Task Force to Promote Self-Esteem and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1990). *Toward a state of esteem: Final report*. CA: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Candy, P. C.(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arlisle, E.(1972).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ocial indicator. In Shonfield and Shaw(Eds.),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policy*. London on Heimann Educational Books.
-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 Washington, DC: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1991). *A New Vision: Promoting*

- youth development, testimony. Washington, DC: House Select Committe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Cheek, J. M., & Buss, A. 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Revised Shyness Scale.
- Chinman M.J & Linney J.A(1998). Toward a Model of adolescent empowerment.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No18. 393-410.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ean, D.(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Social Isolation Items.
- Deci, E. L.(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 Edward G. Carmines & Richard A. Zeller(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US: Sage.
- Fey, W. F.(1955). Acceptance by others and its relation to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A r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274-276. A cceptability to Others
- Gecas, V. & Burke, P. J.(1995). Self and identity. In K. S. Cook, G. A. Fine & J. S. House(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la psychology*, 41-67. MA: Allyn and Bacon.
- Guglielmino, L. M.(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Guglielmino, P. J., & Klatt, L. A.(1994).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s a characteristic of the entrepreneur. In H. B. Long and Associates, *New idea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Oklahoma: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161-173.
- Hamburger, P. L.(1974). *Social indicators: A marketing perspective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319.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 Child Psychology, 25, 153-160.
- Helmreich R., & Stapp, J.(1974). Short forms of the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an objective measure of self-esteem.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4, 473-475.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 Higgins, J. M.(1994).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The handbook of new ideas for business. NY: The New Management Publishing Company.
- Hinnant L. W.(2001). Developing a definition of youth empowerment youth's experiences of empowerment and the role of collective involvemen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Huebner, A.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role of competence. In F. A. Villarruel and others(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James, W.(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Kohn, M., &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Chapter 4. Normlessness.
- La Greca, A. M. Dandes, S. K., Wick, P., Shaw, K., & Stone, W. L.(1988). Development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84-91.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Landers, D. M.(1980). The arousal-performance relationship revisited.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51, 77-90.
- Lazarus, R. S., & Averill, J. R.(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Co. spielberger(Eds.),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2.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tt, E. E.(1980). The psychology of anxiety. Hillsdale, NK: Erlbaum.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1998).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_29_1 18 (7), 765-794.
- Lightsey, O. R. Jr.(1994). "Thinking positive" as a stress buffer: the role of positive automatic cognitions in depression and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325-34.**
- Liang, J.(1985). a Structural Integration of the Affect balance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Journal of Gerontology, 40, 552-561.

- MacKinnon, D. W.(1962).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talent. *American Psychologist*, 17, 484-495.
- McClelland, D. (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 Moore, W. E., and Sheldon, E. B.(1968).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Morris, C. G. (1988). *Psychology: An introduction*(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ser, C.(1973). Social indicators-system,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2.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1996a). *Education indicator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ashington: NCES.
- _____ (1996b). *Youth Indicators*. Washington: NCES.
- O'Malley, P. M., & Bachman, J. F.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Paul, G. L.(1966). *Insight v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 Perkins, D.N.(1988). The possibility of invention. In R.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362-385.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ttman, K. J.(1991). *Promoting Youth Development: Strengthening the Role of Youth Serving and Community Organizations*. Washington, D.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Pittman, K. J., & Irby, M. (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timore: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Putnam, R. D.(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ceton University Press.

- _____(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1-18.
- Robert F. Devellis(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US: Sage.
- Rogers, C. R.(196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osenberg, M.(1957). Occupation and values(pp. 25-35). Glencoe, IL: Free Press.
- Faith in People Scale.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_____(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 R. H. Turner(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593-624. NY: Basic Books, Inc.
- Rotter, J. B.(1971). Generalized expectancies of interpersonal trust, American Psychologist,
26. 443-452. Interpersonal Trust Scale.
- Scales, P., & Leffert, N. (1999). Development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cheussler, K.(1982). Measuring social life feelings. San Francisco: Jossey-bass. Social
Life Feeling Scale 2: Doubt About the Trustworthiness of People.
- Schunk, d. H.(1983). Reward contingenci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s skill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 Scott, W. A.(1965). Values and organizations: A study of fraternities and sororities.
Chicago: Rand McNally. Personal Values Scales(Loyalty).
- Search Institute(2003). Background and history of search institute research efforts. Retrieved
June 2, 2003, from [http://www .search-institute.org/research/assets/background.html](http://www.search-institute.org/research/assets/background.html).
- Search Institute. The 40 developmental assests for adolescents.
<http://www.search-institute.org/assets/40AssetsList.pdf>
- Shaffer, L. F.(1952).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co.
- Shaffer, D. R.(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Wadsworth. Belmont, CA
- Silver, W. S., Mitchell, T. R., & Gist, M. e. (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2(3), 286-299.
- Srole, L.(1956).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09-716. Anomia
- Sternberg, R. J.(1988). Three-facet model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 nature of creativity, pp.125-147.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rance, E. P.(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In Stenberg, R.J.(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 43-75.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Promoting positive pathways of growth.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oodman, R. W. & Schoenfeldt, L.F.(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creativity: A interactionist perspectives. In J.A. Glover, R.R. Ronning, & Reynolds(Eds), Handbook of creativity, pp.77-92. NY:Plenum.
- Wood, R. E., & Cocks, E. A. (1987). The reac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1013-1024.
- Wrightsman, L. S.(1974).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Philosophies of Human Nature(Altruism).
- _____ (1974).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Philosophies of Human Nature(Trustworthiness).
- Young, G., Rathge, R., Mullis, R., & Mullis, A.(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C.(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부 록

1. 2005년 설문지
2. 2006년 설문지
3. 2006년 조사 CODE BOOK

부 록

1. 2005년 설문지

10월		청소년개발지표 연구 위한 조사		ID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봐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되는 데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담당연구원 : 김현철 (02-2188-8836) 김신영 (02-2188-8806)								
SQ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학 년 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SQ3. 학 교 별	① 인문계		② 실업계		③ 기타			
SQ4. 지 역 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먼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문1.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는 행복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나는 사는게 즐겁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나는 살고 싶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나는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고려고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21)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야 할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놓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8)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0)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1)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동료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8)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50) 사람들은 재산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교육적인 체벌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56) 나는 국가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7)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8)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9)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0)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1) 우리것/ 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2)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3) 경제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4) 우리 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5)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6)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체크해주세요.

문2.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지원 불필요	필요한 계통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1) 교육	① -----	② -----	③ -----	④ -----
2) 의료	① -----	② -----	③ -----	④ -----
3) 주택	① -----	② -----	③ -----	④ -----
4) 일자리(또는 실업문제)	① -----	② -----	③ -----	④ -----

문3. 여러분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① 나 자신
② 가족
③ 정부

문3-1. <문3에서 ③ 정부라고 대답한 사람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생활이 힘들 경우만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②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생활비 지급)
③ 노후생활의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의료/생활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전부 포함)

❖ 이번에는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4.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나는 직업에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나는 홍보물, 팸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직업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나는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지난 1년동안 나는 학교 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지난 1년동안 나는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5. 학생은 자신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이미 마만의 진로목표를 설정하였다 ②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③ 아직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문6.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이며, 그 직업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시] ① (교사) ②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싶다)

- 1) 선호하는 직업: (_____)
2)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_____)

문7.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자격조건 등을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 내가 선호하는 직업의 근무조건(임금/근무시간/ 직무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8.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묻겠습니다.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적어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보 기	① 학교를 안 다니셨다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⑤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 및 중퇴포함)	⑥ 대학원 이상
	⑦ 모르겠다	

❶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❶

2. 2006년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ID —



청소년발달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

안녕하세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소년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으로 처
리되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
담당 연구자: 김신영 박사(02-2188-8806)
김상욱 교수(02-760-0412)

조사진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02-760-1270)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02-2188-8800 (팩스) 02-2188-8819
himsy@youthnet.re.kr http://www.kiyd.re.kr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전화) 02-760-1270 (팩스) 02-744-6169
src@dragon.skku.ac.kr http://www.src.re.kr http://www.kgss.re.kr

1. 아래의 진술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 보기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래의 진술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학생이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1)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3)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①	②
4)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5. 다음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사회적 의식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하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8)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 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 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6-1. 여러분들은 다음의 각 내용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및 가족	국가
1) 교육	① _____	② _____
2) 의료	① _____	② _____
3) 주택	① _____	② _____
4) 일자리(또는 실업문제)	① _____	② _____
5) 노후생활	① _____	② _____

7. 다음은 학교생활 이외의 질문입니다. 아래의 활동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8. 학교 이외의 생활에 관한 다음의 각 활동에 실제로 얼마나 참여해 보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참여한 적 없다	거의참여 하지 않았다	가끔 참여해 보았다	가주 참여해 보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아르바이트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캠핑나 박물관 견학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9. 학생의 부모님은 현재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____ ① 그렇다	____ ② 아버지만 돌아가심 ____ ③ 어머니만 돌아가심 ____ ④ 두 분 다 돌아가심
------------	---

↓

9_1.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함께 살고 계십니까? ____ ① 같이 산다 ____ ② 따로 산다(별거) ____ ③ 이혼 ____ ④ 주말부부 ____ ⑤ 해외거주 ____ ⑥ 기타(____)
--

10. 그렇다면 학생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____(01) 아버지/어머니 모두	____(02) 아버지와	____(03) 어머니와
____(04) 할아버지(할머니)	____(05) 결혼한 형(언니/누나)	____(06) 친척집
____(07) 형제들과 자취	____(08) 친구 또는 선후배	____(09) 혼자 살고 있다(자취)
____(10) 하숙하고 있다	____(11)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____(12) 기타 (____)

11. 부모님의 직장 및 하시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____	어머니 ____
① 직장 및 하시는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 ③ 하시는 일만 알고 있다 ⑤ 일을 안 하신다	② 직장만 알고 있다 ④ 직장 및 하시는 일 모두 모른다 ⑥ 해당안됨(사망 등)		

12. 나는 형(오빠)이 ____명, 누나(언니)가 ____명, 남동생은 ____명, 여동생은 ____명이다.
(친형제자매만 해당되며 없으면 적지마세요.)

13. 부모님은 학생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____ ① 중졸	____ ② 고졸	____ ③ 초대졸(2~3년제)
____ ④ 대졸(4년제)	____ ⑤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____ ⑥ 모르겠다

14.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하주세요.

___ ⑤ 무학	___ ① 학교를 안 다니셨다	___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③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⑤ 2년제 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⑥ 4년제 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⑦ 대학원 이상	___ ⑧ 모르겠다

15.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___ ⑤ 무학	___ ① 학교를 안 다니셨다	___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③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⑤ 2년제 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⑥ 4년제 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 ⑦ 대학원 이상	___ ⑧ 모르겠다

16. 사회계층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을 때 귀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귀하께서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기타	

⑥ 없다

17_1. 종교행사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① 항상 참석한다	② 별일이 없으면 참석한다
③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 18번 문항으로 넘어가주세요.

18.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진술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은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 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 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2006년 1학기)기말 성적 → 반 전체 인원 ()명 중의 () 등

20. 다음 과목의 지난 학기(2006년 1학기) 기말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잘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①	②	③	④	⑤

21.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 주세요.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담배 피우기	①	②	③	④
2) 술 마시기	①	②	③	④
3) 무단결석	①	②	③	④
4) 가솔 경험	①	②	③	④
5) 성관계 경험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7) 싸움	①	②	③	④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훔치기)	①	②	③	④
9)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①	②	③	④
10) 원조 교제	①	②	③	④
11)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③	④
12) 남을 협박하기	①	②	③	④
13)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14)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①	②	③	④

22.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2) 협박당하기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4) 심하게 폭행 당하기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5)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6)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23. 만일 친구들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다면, 여러분을 주로 괴롭힌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없으면 0명이라고 적어주세요.

_____ 명

☞ 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문항 27번으로 넘어가주세요.

24. 학생을 괴롭혀 온 사람의 성별은?

___ ① 여학생 ___ ② 남학생 ___ ③ 여학생, 남학생 모두

25.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처음 알렸나요?

___ (01) 부모님 ___ (02) 형제 ___ (03) 친구 ___ (04) 선생님
 ___ (05) 전화상담원 ___ (06) 사이버상담원 ___ (07) 기타(_____) ___ (08)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26. 남을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편입니까?

여러 입장을 취했다라도 여러분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 ___ ① 주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선다
 ___ ② 누군가 남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옆에서 같이 괴롭힌다
 ___ ③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옆에서 그냥 지켜본다
 ___ ④ 피해자 학생편에 서서 그 상황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한다
 ___ 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___ ⑥ 주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___ ⑦ 잘 모르겠다

27. 다음은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모습에 가깝다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___ ⑤ ___
2)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___ ⑤ ___
3)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___ ⑤ ___

28. 다음 문항은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잘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의 학교생활은 내가 바라던 모습에 가깝다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___ ⑤ ___
2) 나의 학교생활 여건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___ ⑤ ___
3) 나는 나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다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___ ⑤ ___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29. 학생의 성별은?
___ ① 여학생 ___ ② 남학생
30. 학생의 학년은?
___ ① 1학년 ___ ② 2학년
31.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계열은?
___ ① 인문계 ___ ② 실업계

※ 아래의 조사원 성명과 면접일시는 기입하지 마세요.

조사원 성명		면접일시	___년 ___월 ___일 ___시
--------	--	------	---------------------

☐ 오랜 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2006년 조사 CODE BOOK

2006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Codeboo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1-2	+ @	BLOCKNO	조사구번호	목록1 랑고
	3-4	+ @	QNO	질문번호	##
	1-4	+ @	RESPID	응답자 ID	##-##
	5	1-1	Q1_1	자아개념1] 자신을 잘 수행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1-2	Q1_2	자아개념2] 외모에 만족한다	2 별로 그렇다
	7	1-3	Q1_3	자아개념3] 특별한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라고 생각한다	3 보통이다
	8	1-4	Q1_4	자아개념4] 성격에 만족한다	4 다소 그렇다
	9	1-5	Q1_5	자아개념5] 우에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5 매우 그렇다
	10	1-6	Q1_6	행복감1] 삶이 행복하라고 생각한다	8 DK
	11	1-7	Q1_7	행복감2] 재정적 여유가 별로 없다	
	12	1-8	Q1_8	자아개념3] 사느게 즐겁다	
	13	1-9	Q1_9	자아개념3] 이복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4	1-10	Q1_10	자아개념3] 인생 목표가 분명하다	
	15	1-11	Q1_11	자아개념3] 목표를 가지고 있다	
	16	2-1	Q2_1	학의성1]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17	2-2	Q2_2	학의성2] 새로운 것을 일려고 한다	
	18	2-3	Q2_3	학의성3]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19	2-4	Q2_4	학의성4]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20	2-5	Q2_5	학의성5]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21	2-6	Q2_6	학의성6] 독립하기를 좋아한다	
	22	2-7	Q2_7	학의성7] 새로운 것을 배워기를 좋아한다	
	23	2-8	Q2_8	학의성8] 자립심을 배워야 할지 알고 있다	
	24	2-9	Q2_9	학의성9]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	
	25	2-10	Q2_10	학의성10]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26	2-11	Q2_11	학의성11]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27	2-12	Q2_12	학의성12]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28	2-13	Q2_13	학의성13]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바꿀 때로 되었는지 검토한다	
	29	3-1	Q3_1	진로탐색1]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30	3-2	Q3_2	진로탐색2] 진로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31	3-3	Q3_3	진로탐색3] 내게 정한 기준에 의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2	3-4	Q3_4	진로탐색4]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33	3-5	Q3_5	진로탐색5]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34	3-6	Q3_6	진로탐색6]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35	4-1	Q4_1	진로탐색7] 상담기관/학교에서 상담받은 적이 있다	
	36	4-2	Q4_2	진로탐색8] 진로탐색을 한다	
	37	4-3	Q4_3	진로탐색9] 진로탐색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38	4-4	Q4_4	진로탐색10] 진로탐색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40	5-1	Q5_1	[사회적 신뢰감] 위험시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1	5-2	Q5_2	[사회적 신뢰감]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2 보통이다
	42	5-3	Q5_3	[사회적 신뢰감]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3 보통이다
	43	5-4	Q5_4	[사회적 신뢰감]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4 다소 그렇다
	44	5-5	Q5_5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믿을 수 있다	5 매우 그렇다
	45	5-6	Q5_6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친구를 만났을 때 편지를 보드랍게 할 수 있다	8 DK
	46	5-7	Q5_7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친구를 만났을 때 편지를 보드랍게 할 수 있다	
	47	5-8	Q5_8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친구를 만났을 때 편지를 보드랍게 할 수 있다	
	48	5-9	Q5_9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친구를 만났을 때 편지를 보드랍게 할 수 있다	
	49	5-10	Q5_10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친구를 만났을 때 편지를 보드랍게 할 수 있다	
	50	5-11	Q5_11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적정말사회적기울기] 친구를 만났을 때 편지를 보드랍게 할 수 있다	
	52	6-1	Q6_1	[인권의식] 사람들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3	6-2	Q6_2	[인권의식] 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다	2 보통이다
	54	6-3	Q6_3	[인권의식] 정부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통이다
	55	6-4	Q6_4	[인권의식]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4 다소 그렇다
	56	6-5	Q6_5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1] 인권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5 매우 그렇다
	57	6-6	Q6_6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2] 인권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8 DK
	58	6-7	Q6_7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3] 한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59	6-8	Q6_8	[인권의식] 정부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0	6-9	Q6_9	[인권의식]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61	6-10	Q6_10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1] 인권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62	6-11	Q6_11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2] 인권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63	6-12	Q6_12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3] 한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64	6-1-1	Q6_1-1	[인권의식4-1] 교육	1 전혀 그렇지 않다
	65	6-1-2	Q6_1-2	[인권의식4-2] 의료	2 보통이다
	66	6-1-3	Q6_1-3	[인권의식4-3] 주택	3 보통이다
	67	6-1-4	Q6_1-4	[인권의식4-4] 일자리(또는 실업문제)	4 다소 그렇다
	68	6-1-5	Q6_1-5	[인권의식4-5] 노후문제	5 매우 그렇다
	69	7-1	Q7_1	[사회참여의식] 참여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70	7-2	Q7_2	[사회참여의식] 참여2]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2 필요하지 않다
	71	7-3	Q7_3	[사회참여의식] 참여3]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3 필요하다
	72	7-4	Q7_4	[사회참여의식] 참여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4 반드시 필요하다
	73	7-5	Q7_5	[사회참여의식] 참여5]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8 DK
	74	8-1	Q8_1	[사회참여의식] 참여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1 전혀 참여할 필요가 없다
	75	8-2	Q8_2	[사회참여의식] 참여2]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2 거의 참여할 필요가 없다
	76	8-3	Q8_3	[사회참여의식] 참여3]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3 가끔 참여해 보았다
	77	8-4	Q8_4	[사회참여의식] 참여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4 자주 참여해 보았다
	78	8-5	Q8_5	[사회참여의식] 참여5]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8 DK

Rwr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1	9	Q9	부모님 생존여부	1 부모 모두 생존 2 아버지만 돌아가심 3 어머니만 돌아가심 4 둘 다 돌아가심 8 DK
	2	9-1	Q9_1	(부모 모두 생존시)부모 거주형태	1 같이 산다 2 따로 산다(별거) 3 이혼 4 주말북부 5 해외거주 6 기타 8 DK 9 NA
	3-4	10	Q10	응답자 거주 형태	01 부모 모두 02 아버지와 03 어머니와 04 할아버지(할머니) 05 결혼한 형(언니/누나) 06 친척집 07 형제들과 자취 08 친구 또는 전우배 09 혼자 살고 있다(자취) 10 하숙 11 기숙사 12 기타 88 DK
	5 6	11-1 11-2	Q11-1 Q11-2	부모님의 직장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여부-아버지 부모님의 직장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여부-어머니	1 직장, 하는 일 모두 알고 있다 2 직장만 알고 있다 3 하는 일만 알고 있다 4 직장, 하는 일 모두 모른다 5 알을 안알린다 6 해당없음(사망 등) 8 DK
	7-8 9-10 11-12 13-14	12-1 12-2 12-3 12-4	Q12-1 Q12-2 Q12-3 Q12-4	형(오빠) 수 누나(언니) 수 남동생 수 여동생 수	##명 88 D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15	13	Q13	부모님이 원하는 응답자 교육수준	1 중졸 2 고졸 3 초대졸(2~3년제) 4 대졸(4년제) 5 대학원 졸(석사, 박사) 8 DK
	16	14	Q14	부친 학력	0 무학 1 학교를 안 다니셨다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2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7 대학원 이상 8 DK
	17	15	Q15	모친 학력	0 무학 1 학교를 안 다니셨다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2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7 대학원 이상 8 DK
	18	16	Q16	응답자 가정의 사회계층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8 DK
	19	17	Q17	종교	1 기독교(개신교) 2 불교 3 천주교 4 원불교 5 기타 6 없다 8 D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20	17-1	Q17_1	종교행사 참석빈도	1 항상 참석 2 평일이 많으면 참석 3 거의 참석하지 않음 4 전혀 참석하지 않음 8 DK 9 NA
	21	18-1	Q18_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2	18-2	Q18_2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3	18-3	Q18_3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4	18-4	Q18_4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5	18-5	Q18_5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6	18-6	Q18_6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7	18-7	Q18_7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8	18-8	Q18_8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9	18-9	Q18_9	형제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9 NA(형제자매 없음)
	30-31 32-33	19-1 19-2	Q19_1 Q19_2	성적-전제인원 성적-전제인원	## 88 DK
	34	20-1	Q20_1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국어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35	20-2	Q20_2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영어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36	20-3	Q20_3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수학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37	20-4	Q20_4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사회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38	20-5	Q20_5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과학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39	20-6	Q20_6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음악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40	20-7	Q20_7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미술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41	20-8	Q20_8	06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수-체육	1 매우 만족하는 수준 2 중간 만족하는 수준 3 중간 만족하는 수준 4 만족하는 수준 5 매우 만족하는 수준 8 DK
	42	21-1	Q21_1	1년간 경험빈도-음악작곡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3	21-2	Q21_2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4	21-3	Q21_3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5	21-4	Q21_4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6	21-5	Q21_5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7	21-6	Q21_6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8	21-7	Q21_7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49	21-8	Q21_8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0	21-9	Q21_9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1	21-10	Q21_10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2	21-11	Q21_11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3	21-12	Q21_12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4	21-13	Q21_13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5	21-14	Q21_14	1년간 경험빈도-악기연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56	22-1	Q22-1	1년간 당한 경험빈도-심한 놀임, 조롱	1 전혀 없었다
	57	22-2	Q22-2	1년간 당한 경험빈도-협박	2 거의 없었다
	58	22-3	Q22-3	1년간 당한 경험빈도-친단 따돌림	3 가끔 있었다
	59	22-4	Q22-4	1년간 당한 경험빈도-심한 폭행	4 자주 있었다
	60	22-5	Q22-5	1년간 당한 경험빈도-성폭행, 성희롱	8 DK
	61	22-6	Q22-6	1년간 당한 경험빈도-돈, 물건 빼앗기기	
	62-63	23	Q23	주로 괴롭히는 친구 수	##명 88 DK
	64	24	Q24	(괴롭힘을 당한 다면)괴롭혀 온 사람의 성별	1 여학생 2 남학생 3 여학생, 남학생 모두 8 DK 9 NA
	65-66	25	Q25	(괴롭힘을 당한 다면)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	01 부모님 02 형제 03 친구 04 선생님 05 전학상담원 06 사이버상담원 07 기타 08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88 DK 99 NA
	67	26	Q26	(괴롭힘을 당한 다면)괴롭혀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	1 괴롭히는 일에 주도적 2 열에서 같이 괴롭힘 3 그냥 지켜본다 4 중립시키려고 노력 5 신경쓰지 않는다 6 주로 괴롭힘을 당한다 8 DK 9 NA
	68	27-1	Q27-1	나의 생활은 내가 바란듯 모습에 가깝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9	27-2	Q27-2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훌륭하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70	27-3	Q27-3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71	28-1	Q28_1	학교생활은 내가 바라던 모습에 가깝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2	28-2	Q28_2	학교생활 여건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73	28-3	Q28_3	나의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74	29	Q29	응답자 성별	1 여학생
					2 남학생
	75	30	Q30	응답자 학년	1 1학년
					2 2학년
	76	31	Q31	응답자 학교 계열	1 인문계
					2 실업계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김병수 University of Missouri · 사회학과 교수

김영란 통계청 정보서비스과

김영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김파랑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수석연구원

류숙희 다중지능연구소 · 연구원

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교수

이명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Dr. Marc Mannes Director of Applied Research · Search Institute

◆ 보조 연구진 ◆

이가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조원

김성은 평택대학교 다문화연구센터 · 선임연구원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운숙·박한우
-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해연·조정문·김아미
-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홍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 홍승아 · 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 마츠다 시게끼 · 무꾸오 아사코 · 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 ·
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영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혜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장현 · 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운숙 · 오승근 · 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영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8.14)
-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8.17)
-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8.18)
-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9.6~9.8)
-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8.22)
-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9.9)
-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10.10)
-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10.19)
- 06-S15 「청소년과 미디어」(11.10)
-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11.15)
-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24)
-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12.6)
-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인 쇄 2006년 11월 17일

발 행 2006년 11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14-8